

# 중국 학계 고구려 연구의 진척, 평의 및 전망 - 문헌에 근거한 계량학적 분석을 토대로 -

楊璐\* · 全瑩\*\*

- 
- I. 머리말
    1. 연구 방법
    2. 데이터 출처 및 처리
  - II. 중국 학계의 고구려 연구의 논문 동향과 주요 저널 분석
    1. 전반적인 논문 발표 추이
    2. 석·박사 학위논문에 관한 토론
    3. 중국의 고구려 연구 주요 저널 발표
  - III. 중국 학계의 고구려 연구의 핵심 저자와 주요 연구 기관의 분석과 소개
    1. 핵심 저자
    2. 주요 연구 기관
  - IV. 중국 학계의 고구려 연구 초점과 중심 주제 분석
    1. 고구려 연구 초점
    2. 중심 주제
    3. 어려운 점과 한계
  - V. 맺음말: 중국 학계의 고구려 연구의 향후 발전 방향
    1. 학술 방면
    2. 기술과 정책 방면
- 

## 【국문초록】

고구려의 특수한 역사적·문화적 가치로 인해, 중국 학계에서 고구려에 관한 연구는 오랜 기간 축적되고 발전해 왔다. 본 논문은 문헌 계량학적 방법을 기반으로 CNKI 데이터베이스

---

\* 주저자: 中國 黑龍江大學

\*\* 교신저자: 中國 延邊大學

를 연구 표본으로 삼아, 1952년 이후 중국학계의 고구려 연구 성과를 체계적으로 정리·분석하였다. 중국 학계에서 고구려 연구 초점, 발전 경향, 핵심 연구자, 주요 학술지의 발행 현황 및 인용 비율, 주요 연구 기관 등의 특징을 분석하고, 고구려 연구의 핵심 경로 및 지식 생산 전환점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연구 결과, 중국 학계의 고구려 연구는 주로 고구려 유적 및 문화유산, 지역 교류와 역사·문화적 연계, 사회변천과 정치구조, 신화·종교·예술이라는 네 가지 분야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재 연구에는 몇 가지 한계점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실질적인 혁신 부족, 연구자 연령구조의 고령화 추세, 국제적 논쟁과 정치적 요인이 연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등이 있다.

현재의 연구 동향과 관련 데이터를 고려할 때, 향후 중국학계의 고구려 연구는 다 학과적인 시각을 더욱 융합하고, 과학기술의 지원을 활용하며, 정책적 방향과 문화전략을 기반으로 지역사와 세계사의 접점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주제어 : 고구려, 중국학계, 문헌 계량법, 연구 현황, 발전 추세

## I. 머리말

고구려는 동북아 역사 속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독특한 정치, 경제, 문화 및 예술적 성취는 동아시아 역사의 전개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19세기 말 이후로 고구려의 역사 문화와 관련 문제들은 중국 학계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특히 고구려 고분벽화, 성곽 유존 그리고 금석 자료들의 발견과 연구는 고구려의 문화적 양상을 생생하게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고대 문명의 교류와 상호작용을 탐구하는 데 풍부한 자료를 제공해 주었다.

중국 학계의 고구려 연구는 대략 ‘점(點)’ ‘선(線)’ ‘면(面)’의 세 개의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점’은 고구려 연구에서 특정 문제나 단일 주제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연구로, 개별사례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하며 특정 역사적 사건, 인물, 유적 또는 문헌에 대한 심도 있는 탐구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강한 목표성과 미시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연구는 매우 세밀하고 구체적인 성과를 이바지하며 풍부한 개별 사례 사료를 축적하여 고구려 연구의 심층 발전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는 것이 그 특징이다. ‘선’은 고구려 연구의 발전 맥락에서 나타나며 주제를 관통한다. 이러한 연구는 일반적으로 여러 ‘점을 연결하여’ 체계적인 논의를 형성하고, 특정 분야의 역사적 변화나 논리적 관계를 연구함으로써 시간과 공간의 연속성을 강조하여 고구려 역사의 전체적인 틀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고 고구려의 사회문화를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준다. ‘면’은 고구려 연구의 전체적인 구도와 종합

적인 탐구를 의미하며, 고구려 사회와 문화, 그리고 동아시아 문명에 미친 영향을 거시적인 시각에서 분석한다. 특히 동아시아 문화권의 일부인 고구려의 정체성과 지역적, 그리고 국제적 의미에 주목한다. '점', '선', '면'의 결합을 통해 고구려 연구는 점차 미시적에서 거시적으로의 심화를 실현하였으며, 구체적인 문제의 세부 사항에 주목하면서도 전체적인 시야를 잃지 않고 이 분야의 종합 발전에 명확한 경로를 제시해 주고 있다. 그러나 고구려의 역사적 귀속, 문화적 특성 등을 둘러싸고 학계에서는 여전히 많은 논쟁이 존재하고 있다.

실제로 중국 학계는 고구려 관련 연구 성과에 대해 이미 여러 차례 정리를 하였고 아울러 여러 편의 연구 보고서를 종합하고 여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sup>1)</sup> 기존의 연구 성과들을 보다 편리하고 직관적으로 이해토록 하고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향후의 연구 방향을 추측합니다. 저자는 고구려 연구의 심화를 촉진하기 위해 CNKI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고구려 연구 문헌에 대한 전면적인 분석 작업을 시도하였다.

## 1. 연구방법

문헌 계량(計量)적 방법의 광범위한 적용으로 학술 연구에서의 정량화(定量化), 가시화(可視化) 분석은 학술 연구에 새로운 관점과 방법을 제공해 주었다. 이 방법은 학술 연구의 발전 맥락을 종합적으로 밝힐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데이터 분석과 가시화를 통해 학술 연구의 초점, 연구 공백 및 미래 발전 추세를 나타낼 수 있다. 이 논문에서의 데이터 처리는 주로 Co-Occurrence(COOC), VOSviewer와 Cite Space 등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였다. COOC는 문헌을 계량학적으로 분석하는 도구로 현상 분석, 인터넷에서의 키워드, 주제별 취합 등 방법을 통해 해당 연구 분야의 이슈와 연구 추세를 밝힐 수 있다. VOSviewer는 지식 형상 소프트웨어로 해당 분야에서의 협력관계의 변화를 밝혀 연구 초점과 발전추세를 돋보이게 한다. Cite Space는 문헌을 계량하는 소프트웨어로 인터넷 계산법(Pathfinder)과 키워드 공동 인용 분석 이론(Co-citation)을 통해 해당 분야에 대한 도보(圖譜)를 생성하여 문헌에 대한 시간별, 동적 및 다중 가시화 분석을 지원한다. 아울러 이런 작업을 통하여 학과(學科) 진화 동력 메커니즘 및 첨단 탐측 연구를 지원한다.

## 2. 데이터 출처 및 처리

본 연구는 과학적 계량 도구를 기반으로 중국 학계에서 고구려 연구 분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현상 분석 네트워크 지도와 키워드 공동 인용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국내 학계의 연구 초점, 발전 맥락, 주요 학술 집단의 특성 및 지식 전파 규칙 등의 특징을 심층적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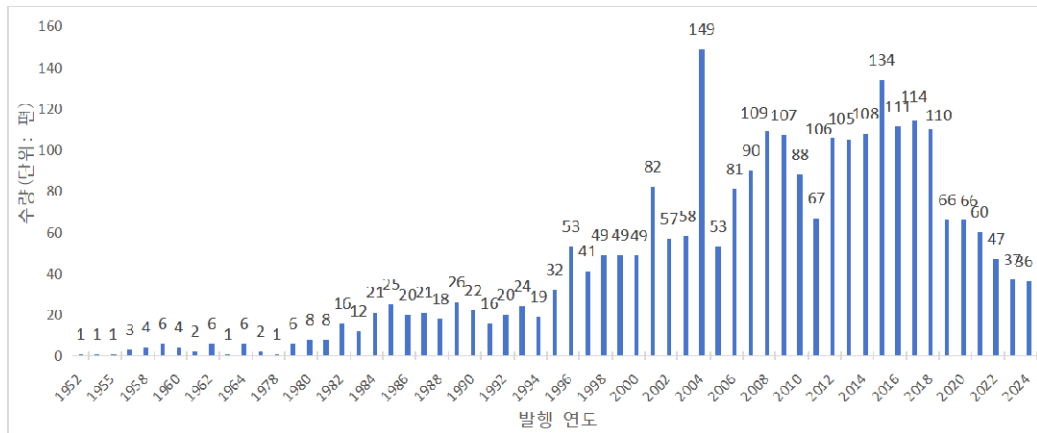
1) 高福順·明陽, 2024, 21~41쪽 ; 朱尖, 2020, 123~144쪽 ; 耿鐵華, 2019, 163~179쪽 ; 王天姿·吳博, 2016, 194~203쪽 ; 範恩實, 2016, 348~381쪽 ; 孫進己, 2001, 183~195쪽.

분석한다. 문헌 선별은 시스템 검색 전략을 채택하여 '고구려'를 핵심 주제로 삼고, 중국 지식망(CNKI) 문헌 데이터베이스 및 석·박사 학위 논문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검색 기간은 1952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의 전 시간대를 포괄한다. 자료 점검, 선별 및 표준화 처리<sup>2)</sup>를 거쳐 최종적으로 유효 학술지 문헌 2,410편, 석·박사 학위 논문 224편(그 중 석사 논문 197편, 박사 논문 27편 포함)을 획득하여, 총 2,634편의 표준화된 연구의 분석 표본을 구성하였다. 이 데이터 체계는 해당 분야의 지식 그래프 구축을 지원하며, 학술 발전의 핵심 궤적을 밝히고 중요한 패러다임 전환점을 포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II. 중국 학계의 고구려 연구의 논문 동향과 주요 저널 분석

### 1. 전반적인 논문 발표 추이

COOC가 작성한 통계도 [그림 1]에서 알 수 있듯이, 중국 학계의 고구려 연구에 관한 논문 발행 수는 1952년 이후 뚜렷한 변화 추세를 겪어왔다. 전체적으로 “완만한 출발→ 급격한 성장→ 파동의 정점→ 하락”의 단계별 특징을 나타내고 있고, 이러한 변동 추세는 중국의 학술 환경과 사회적 배경의 역동적 변화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그림 1] 중국 학계의 고구려 연구논문과 석박사학위논문 연도별 통계 그래프

초기(1950~1970년대)에는 고구려 연구가 아직 맹아(萌芽) 단계에 머물러 있어 발행 건수가 극히 적었고, 기본적으로 매년 한 자릿수에 머물렀다. 이 시기의 연구는 주로 사료를 정리하

2) 이 글은 고구려와 관련된 논문만 선정하였으며, 연관성이 낮은 일부 논문은 제외하였다. 하여 다른 학자들의 통계 분석과는 일정한 차이가 존재한다.

고 단순한 역사 문제를 탐구하는 데 집중되었다.<sup>3)</sup> 당시 학술 자원이 매우 부족하였고 연구 조건이 제한적이었으며, 학계가 나라의 현대화 건설과 사회 변혁에 더 큰 관심을 기울였다. 변두리 의제로 취급된 고구려 연구는 심도 있는 연구 조건이 부족했습니다. 이 시기의 연구는 비록 흩어져있으나, 후속 발전의 기초를 마련해 주었다. CNKI에서 검색 가능한 첫 번째 고구려 관련 문헌은 조선(朝鮮) 학자 두유호(都宥浩)가 집필하고, 중국학자 이계열(李啟烈)이 번역한 북한 안악에서 발견된 「조선 안악에서 발견된 몇몇 고구려 고분」이다.<sup>4)</sup> 이 논문은 조선 건국 초기에 안악 지역에서 발굴된 몇 개의 고구려 고분의 발굴 과정, 무덤의 형태, 부장품 및 고분 벽화의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였다. 같은 시기, 중국은 전주농(全疇農), 김용준(金溶俊) 등 여러 조선 학자의 수 편의 논문들도 번역하였다.<sup>5)</sup>

개혁개방 이후(1980~1990년대), 중국 학계가 외국 학계와 접촉하기 시작하면서 연구 조건이 점차 개선되었고, 학자들의 동북 변방의 역사 문제에 관한 관심도 높아졌다. 지속적인 고고학 발굴, 특히 지안 고구려 고분군 등 주요 유적지의 발견은 고구려 연구에 많은 직접적인 자료를 제공하였다. 인류학과 고고학적 방법의 도입은 연구 방법의 다양화를 촉진해, 고구려 연구가 단일적인 역사 연구에서 다양한 영역으로 점차 확장되었다.<sup>6)</sup> 이 시기의 논문 발행 건수는 안정적으로 증가하여, 연평균 발행량이 한 자릿수에서 20편 이상으로 증가하여 해당 분야 연구의 활발함과 지속성을 보여주었다.

2000년대 초반, 중국의 고구려 연구는 빠르게 발전하는 황금기로 접어들었으며, 발행 수는 2004년에 149편으로 정점을 찍었다. 이 단계에서 연구 열풍의 형성은 주로 일련의 내외부 요인에 의해 추진되었다. 오녀산성(五女山城), 환도산성(丸都山城) 등 대규모 고고학 발굴과 2004년 고구려 유적군이 성공적으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것이 학계에 새로운 연구 동력을 불어넣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고구려의 역사적 귀속 문제에 대한 국제 사회의 논쟁(예를 들어, 한국 학계의 '동북공정'에 관한 논의<sup>7)</sup>)는 중국 학계의 긍정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켜 관련 연구를 심화시켰다. 중국이 국가 차원에서 동북 진흥 전략<sup>8)</sup> 제시함과 더불어, 고구려

3) 王立達, 1955, 51~52쪽 ; 楊泓, 1958, 12~21쪽 ; 張馭寰, 1958, 22~25쪽.

4) 都宥浩·李啟烈, 1952, 91~101쪽.

5) 全疇農, 1959, 85~104쪽 ; 金溶俊·振家·雲華, 1959, 93~109쪽.

6) 李殿福, 1982, 82~85쪽 ; 林至德·閻毅之·趙書勤, 1983, 301~307쪽 ; 孫玉良, 1985, 80~87쪽 ; 樸真奭, 1989, 138~147쪽.

7) “동북변경 역사와 현상 시리즈 연구공정(东北边疆历史与现状系列研究工程)”, 약칭 “동북공정(东北工程)”은 중국 사회과학원과 동북 지역 3개성의 관련 학술기관과 대학교들을 연합하여 조직한 학술 프로그램으로 2002년 2월에 정식으로 출범하였다. 이 공정의 연구 과제는 연구, 번역과 자료 세 개의 부분으로 나누었다. 주된 연구에는 고대중국 강역이론 연구, 동북지역 역사 연구, 동북 민족사 연구, 고조선 고구려 발해사 연구, 한중관계사 연구 등이 포함되어 있다.

8) 2003년 8월 3일, 중국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며 국무원 총리인 온가보(溫家寶)가 장춘에서 동북지역 옛 공업 진흥에 관한 최고급회의를 주최하였고 서부지역 대개발이라는 전략을 제시하였다. 즉 동부 지역의 발전을 가속화하고 술선하여 전면적인 발전과 현대화를 실현하며

연구도 이에 상응하는 정책적 지원을 받아 연구의 학술 가치와 현실적 의미가 더욱 향상되었다. 이 시기의 연구 초점은 주로 고구려의 역사 귀속<sup>9)</sup>, 문화적 특징<sup>10)</sup>, 사회적 구조<sup>11)</sup> 등 문제에 집중되었고, 연구 영역은 고고학에서 문화예술, 종교 신앙 등 다방면으로 확장되어<sup>12)</sup>, 연구 내용의 다양성과 학술적 시각의 풍부함을 보여주고 있다.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고구려 연구는 상대적으로 안정된 시기에 진입하였고, 발행 수는 2004년의 최고치에는 미치지 못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연구 내용이 체계화되고 심화되면서 학술 성과가 점차 풍부해졌고, 다학제 간의 융합 연구가 중요한 특징으로 자리 잡았다. 고구려 연구는 점차 고구려 사회의 문화예술, 종교 신앙 및 주변 정권과의 관계 등 더욱 다양한 의제로 전환되었다.<sup>13)</sup> 이러한 연구의 흐름은 중국 학계의 고구려 연구를 전면적으로 발전시켰을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의 역사와 문화 교류에 대한 더 넓은 틀에 통합시켰다. 다만, 이 시기에도 연구 성과의 수는 약간의 변동을 보였는데, 2015년에는 134편의 발표 수로 두 번째 정점에 도달한 후 점차 감소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변화의 원인으로서는 첫째, 고구려 연구가 주요 분야에서 일반적인 학술 의제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 둘째, “한국 사드 도입”<sup>14)</sup> 문제가 중한 관계의 긴장을 초래함에 따라, 이러한 긴장된 분위기가 학술 연구에 빠르게 반영되었다는 점이다.

2020년대에 접어들면서는 발행 수가 눈에 띄게 감소하여, 연평균 약 60편을 유지하였다. 이러한 추세는 고구려 연구 분야가 점차 성숙해진 것과도 관련이 있다. 학계에서 고구려의 핵심 문제(예를 들어, 역사적 귀속, 문화 속성 등)에 대해 보다 체계적인 논의가 이루어져 새로운 연구 성과가 제한적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일부 학자들이 연구 초점을 “일대일로(一帶一路)” 나 글로벌 역사관과 같은 열기가 더 뜨거운 학술 영역으로 전환함에 따라 고구려에 관한 관심은 다소 감소하였다. 또한, 학술 자원의 재분배와 외부 환경의 변화(예를 들어, 연구비 지원, 연구 정책 조정 등) 역시 발표 수에 영향을 미쳤다. 그런데도 고구려 연구는 학술 가치를 잃지 않고, 문화 교류와 동아시아 문화권에 미치는 영향 등 지역 간 연구와 세계화의 관점에서 비교 연구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sup>15)</sup>

---

동북지역 등 옛 공업기지의 조정, 개조를 지지하여 동서가 서로 연동하고 중부 지역의 발전을 견인하며 지역경제의 협동적인 발전을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9) 張碧波, 2000, 1-9쪽; 徐德源, 2001, 171-183쪽; 馬大正, 2004, 5-11쪽.

10) 耿铁华, 2001, 71-80쪽; 杨军, 2002, 24-28쪽; 王绵厚·辽东, 2006, 2-12쪽.

11) 樸燦奎, 2003, 94-100쪽; 薛海波, 2008, 4-5쪽; 李大龍, 2009, 9-14쪽.

12) 王麗萍, 2001, 273-274쪽; 孫泓, 2004, 20-31; 李樂營, 2008; 林茂雨·李龍彬, 2002, 52-56쪽.

13) 馮立君, 2018, 137-150쪽; 薛海波, 2010, 34-36쪽; 孫煒冉, 2017, 170-180쪽; 楊璐·全瑩, 2019, 40-49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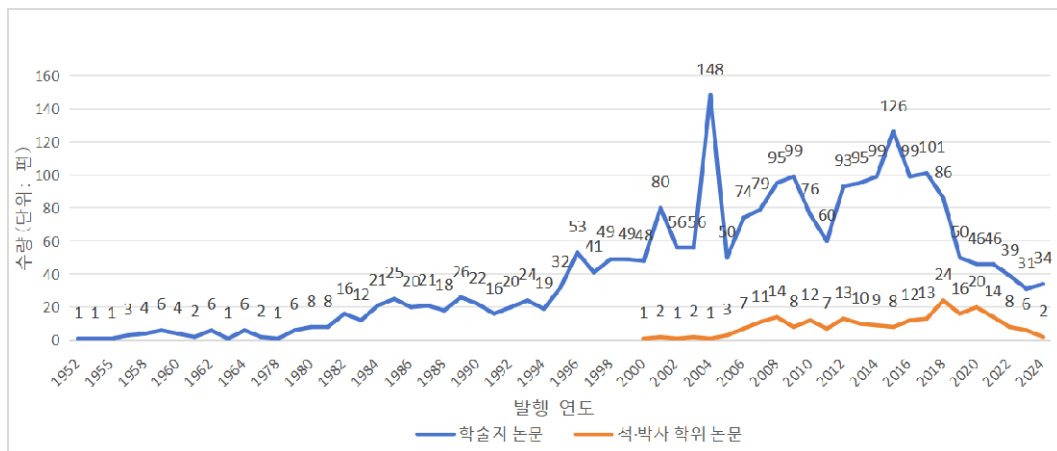
14) 사드(THAAD)는 미국이 만든 탄도미사일 방어시스템이다. 2016년 한국은 사드를 국내에 설치하여 조선의 위협에 대응하고자 하였으나 국제적 논쟁을 불러 일으켰다. 중국과 러시아는 사드가 본국의 안전을 위협한다며 강경하게 반대하였고 상응한 경제와 외교적인 반대조치를 취하였다. 이 사건은 결국 한중관계의 악화를 초래하였다.

15) 汪暉, 2020, 88-100쪽; 範恩實, 2021, 57-66쪽.

전반적으로 중국의 고구려 연구 성과 발표 추세는 학술 발전과 사회 문화적 배경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반영한다. 초기의 산발적인 탐구에서 체계적인 연구, 그리고 연구 초점의 심화와 조정에 이르기까지, 고구려 연구는 점차 완전한 발전 맥락을 구축하여 미시적 문제에서 거시적 시각으로의 연구 과정을 보여주었다.

## 2. 석·박사 학위논문에 관한 토론

석·박사 학위 논문은 여러 측면에서 특정 연구 방향의 전반적인 상황과 발전 추세를 반영할 수 있다. 특히 박사 학위 논문의 등장은 특정 연구 방향이 초기 탐색 단계를 넘어 심화 발전 단계로 접어들었음을 의미하며, 이론, 방법 및 연구팀 등 측면에서 성숙한 지원 기반을 갖추고 있음을 나타낸다. 중국 대학교에서 발표된 고구려 연구 관련 석·박사 학위 논문 [그림 2]와 학술지 논문은 양적 변화에서 현저한 동일 주파수 공명 현상을 보이며, 이러한 동적 결합은 연구 이슈에 대한 학술 공동체의 집단 반응 메커니즘을 드러낸다. 그러나 석·박사 학위 논문은 연구 이슈의 반영에 있어 일반적으로 약 1~2년 정도 지연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학술 동향의 지연 효과는 주로 학위 논문이 주제 선정과 논증, 문헌 심층 발굴, 실증 조사와 여러 차례의 학술 심사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신흥 연구 패러다임 전환의 실효성이 학술지 논문의 신속한 발표 메커니즘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림 2] 학술지 논문과 석박사 논문의 연도별 발표량 라인 차트

중국 학계의 고구려 연구는 비록 1952년에 시작되었지만, 2000년에야 첫 박사 학위 논문이 등장하였다. 즉 화동사범대학교(華東師範大學) 박군길(朴均吉)의 『현장(玄奘)과 한반도 불교』<sup>16)</sup>인데, 이 논문은 고구려를 유일한 연구 대상으로 삼은 건 아니었고, 단지 관련 장절에서

고구려 시기의 불교 전파 상황을 다루었다. 그다음 해에는 고구려를 연구 대상으로 한 첫 석사 학위 논문인 『고구려 평양 천도 문제 연구』<sup>17)</sup>가 발표되었으며, 이 논문은 평양의 천도 배경과 그 의미를 다뤘다. 초기 학위 논문 중 영향력이 비교적 큰 논문은 기남대학교(暨南大學) 응의민(熊義民)의 박사학위논문 『기원 4~7세기 동북아 정치 관계사 연구』<sup>18)</sup>와 이낙영(李樂營)의 박사학위논문 『고구려 종교 신앙 연구』<sup>19)</sup>이다. 이 두 편의 논문은 각각 42회와 32회의 인용 횟수를 기록하였고, 해외 연구 성과를 소개하는 한편 문헌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통해 몇 가지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여 관련 분야의 향후 몇 년간의 연구 방향에 큰 영향을 미쳤다.

필자는 고구려 연구에 관한 중국 학계의 석·박사학위 논문 수여 상황을 [표 1]로 정리했다. 이 분야의 학위 수여 기관은 뚜렷한 지역 집중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주로 중국의 동북 지역 대학교들이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중 연변대학교(延邊大學), 길림대학교(吉林大學), 동북사범대학교(東北師範大學)는 각각 52명, 40명, 31명의 고구려를 주제로 논문을 쓴 대학원생들에게 학위를 수여하여 총 55.4%를 차지하여 이 세 대학교가 고구려 연구 분야에 이바지한 공로를 입증하였다. 또한, 심양건축대학교(瀋陽建築大學), 장춘사범대학교(長春師範大學) 등 대학교들도 이 분야에 안정적인 연구 인력을 이바지했다.

동북 지역 외의 대학으로는 섬서사범대학교(陝西師範大學), 중앙민족대학교(中央民族大學), 복건사범대학교(福建師範大學) 등이 있으며, 비록 학위 수여 수는 적지만 이들의 참여는 고구려 연구가 점차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경향은 중국 정부가 변방 지역의 역사를 중시하고, 고구려 연구는 한중 관계사, 중국 동북 지역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학문적 및 현실적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지리적 자원 우위의 부족으로 인해 동북 지역 외의 대학교의 해당 분야 연구는 여전히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표 1] 고구려 연구 대학원생에게 학위를 수여한 주요 대학교

학위 수여대학교	학위 수	비중	학위 수여대학교	학위 수	비중
延邊大學	52	23.4%	陝西師範大學	6	2.7%
吉林大學	40	18.0%	中央民族大學	6	2.7%
東北師範大學	31	14.0%	吉林建築大學	5	2.3%
瀋陽建築大學	11	5.0%	福建師範大學	4	1.8%
長春師範大學	8	3.6%	遼寧大學	4	1.8%

16) 樸均吉, 2000.

17) 沈英淑, 2001, 「高句麗遷都平壤問題研究」, 延邊大學碩士學位論文.

18) 熊義民, 2003, 「公元四至七世紀東北亞政治關係史研究」, 暨南大學博士學位論文.

19) 李樂營, 2008, 「高句麗宗教信仰研究」, 東北師範大學博士學位論文.

### 3. 중국의 고구려 연구 주요 저널 발표

중국 학계에서 고구려 관련 논문을 발표한 저널은 총 274종이며, 이 중 주요 저널은 7가지이다.<sup>20)</sup> [표 2]는 COOC를 이용하여 통계한 중국에서 고구려 연구를 발표한 주요 학술지와 그 발행량이다. 현재 중국의 주요 고구려 연구를 다룬 주요 학술지는 뚜렷한 지역적 및 학문적 특성을 보이고 있으며 발표된 저널의 수의 분포가 비균형적이다. 이러한 현상은 지리적 및 역사적 배경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7종의 주요 학술지 중, 『중국 변강 역사와 지리 연구(中國邊疆史地研究)』와 『고고(考古)』 2종의 학술지의 주관 기관만이 베이징에 자리 잡고 있으며, 나머지 5종의 학술지들은 모두 동북 지역에 자리 잡고 있다. 『중국 변강 역사와 지리 연구(中國邊疆史地研究)』와 『고고(考古)』 두 잡지가 주요 대열에 오를 수 있었던 주된 이유는 학문적 위치와 기관 계층의 독특성 때문이다. 『중국 변강 역사와 지리 연구(中國邊疆史地研究)』는 중국사회과학원이 주관하며, 변강 연구에서 종합적인 권위를 가진 플랫폼으로써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고 전국 학술 성과를 통합하여 고구려 연구의 거시적 학술 체계를 구축했다. 이 잡지는 고구려와 중원 왕조의 상호작용을 연구 맥락으로 삼아 고구려의 오부 제도와 중원 통치 모델의 연계를 체계적으로 논의하며, 내용은 정치 군사 역사, 민족 융합 및 문화적 정체성을 포함하고 있다. 연구 방법은 고고학 자료와 문헌의 상호 증명을 중시하며, 고구려 연구의 국제화 과정을 추진하는 데 주력하여 역사 인식을 심화하고 현실 응용을 촉진하는 핵심 학술 플랫폼이 되고 있다. 『고고(考古)』는 중국과학원에 소속되어 있으며, 국가급 고고학 주력 저널로서 고구려 왕성, 고분 벽화 등 중대한 고고학적 발견을 장기간 체계적으로 게재하여 국경을 넘는 만 명의 비교 연구를 촉진하고 있다. 두 잡지는 중앙 기관의 자원 통합 능력과 학문적 교차 우위를 바탕으로 지역 성과가 전국적인 커뮤니케이션으로 나아가는 핵심 매개체가 되었으며, 이는 고구려 연구가 변강 역사, 고고학 등 거시적 틀에서 학문적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

중국 동북 지역은 고구려 정권 활동의 핵심 지역으로, 흑룡강(黑龍江), 길림(吉林), 랴오닝(遼寧) 등지에는 많은 고구려 유적지, 무덤 벽화, 유물들이 분포되어 있어, 지역 내 학술 기관에 자연적인 연구 우위를 제공한다. 동북 지역의 대학교들은 지리적 이점과 학문적 축적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연구 계층을 형성하여 지역 학술지의 주제화 발전을 촉진했다. 동북 지역의 대학교들, 예를 들어 연변대학교, 길림대학교, 동북사범대학교 등은 탄탄한 학문적 기반과 학술적 축적을 바탕으로 고구려 연구를 심화 발전시키고 있으며, 이들 기관은 다수의 고구려

20) 퍼드의 법칙은 모든 저널을 기사 수순으로 정렬한 후 세 개의 영역으로 구분하며 각 영역의 기사 수는 대략 동일하고 각 영역에 포함된 저널 수는 대략  $1:n^2$ 의 비율로 구성된다. 본 논문의 학술지 논문 샘플은 2,410편으로 전체 문헌의 1/3을 차지하는 학술지 수는 803편이다. 머리부터 시작하여 약 803편이 넘을 때까지 누적 기사 수를 늘린다. 이 기사의 샘플 저널 중 상위 7개 저널의 총 발행량은 836편이다. 따라서 상위 7개 저널을 핵심 저널로 인정한다. 하지만 이곳의 핵심 저널은 중국 저널 논문 체계의 '핵심 저널'과 혼동될 위험이 있으므로, 본문에서는 이를 '주요 저널'이라고 일컫는다. 참고: 邱均平, 2022, 96~98쪽.

연구 석·박사 인재를 양성하고, 장기간에 걸쳐 동북아 역사 및 문화 연구에 매진하면서 해당 분야의 연구 성과를 지역 학술지에 집중적으로 발표하여 학계에 광범위한 교류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다.

『지역문화연구(地域文化研究)』(구 『동북사지(東北史地)』)는 고구려 연구를 핵심 특징으로 하며, 관련 논문의 누적 발행량은 중국 학계의 고구려 연구 총 발행량의 8분의 1을 차지하여 국내 해당 분야의 중요한 학술 진지이다. 코너는 '고구려 발해 연구', '전문가 포럼', '고고학 및 유물', '비석 연구' 등 다양한 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치 제도, 도성 고고학, 비각 해석, 민족 융합 및 문화 유적 등의 방향에 초점을 맞추어 학계 간 연구 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 학술지는 실증 연구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예를 들어 호태왕비와 지안 고구려비의 지속적인 해석을 통해 의류, 벽화, 인구 이동 등 사회사 분야로 확장하고 있다. 국가 사회과학 기금 등 42개 과제에 대한 지원이 절반을 초과하여 학문적 영향력을 부각했다. 『지역문화연구(地域文化研究)』는 '중국 고구려 연구 제1호'로 불리고 있다. 이 잡지는 중국 학계의 고구려 연구를 본격적으로 추진했고, 고구려 연구의 '불씨'를 어느 정도 간직하고 있을 정도이다. 『통화사범대학 학보(通化師範學院學報)』는 통화사범대학이 주최하는 종합 학술지로, 고구려의 고도에 있는 지리적 이점을 바탕으로 오랫동안 고구려 역사 문화 연구를 중요한 방향으로 고수해 왔다. 이 학보는 '고구려·발해 역사 문화 연구' 코너를 설립한 이래 지속적으로 관련 논문을 게재하며 학문적 틀을 구축하는 데 힘써 왔다. 이 잡지는 주제가 풍부하고, 시각이 다양하며, 지역 경험과 학문적 전승을 중시하는 특징을 보여주었다. 종교 신앙, 장례 관습, 사회 구조, 언어 어원, 벽화 예술, 민족 융합 등 여러 방면을 포함하며, 강한 지역 역사에 관한 관심과 민족 문화 자각을 보여주었다. 교내 고구려 연구원과 동북지역 관련 대학교 출신으로 사료 발굴과 이론 결합에 주력하고 고구려 연구자 인터뷰, 학술 역사 자료 정리 등을 통해 학술공동체 의식을 구축한 국내 고구려 연구 성과 집결의 중요한 플랫폼이다. 학보는 이론 연구를 게재할 뿐만 아니라 문화유산 보호 실천에도 이바지하고 있다. 학보는 고구려 학술 심포지엄을 주최함으로써 중국·북한·한국 학계의 대화를 촉진하고 동북아 연구의 국제적 영향력을 강화하였다.

『북방문물(北方文物)』은 지린성 문물고고연구소가 주관하는 전문 학술지로, 오랫동안 중국 북부 특히 동북 지역의 문물과 고고학 연구에 전념해 왔다. 고구려 연구 측면에서 이 잡지는 탄탄한 야외 고고학 자료를 바탕으로 산성, 무덤, 벽화, 금속기물 등의 유적지와 출토 유물의 현장 조사 및 발굴 성과를 부각해 뚜렷한 실증 연구 방향을 형성하고 있다. 학술지는 지린, 랴오닝 등 지역의 고고학 기관과 고구려 연구 기관의 단계적 성과를 광범위하게 게재하고 있으며, 고구려의 정치 제도, 사회 구조, 신앙 관념, 도성 형태 및 대외 관계 등 여러 측면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학제적 연구 방법과 과학기술 수단의 도입에 중점을 두고 금속 분석, 건축구조, 도상 연구 등에서 방법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고구려 고고학과 역사 연구에 중요한 실물 재료의 기초와 이론적 뒷받침을 제공하여 국내외 학계에서 탁월한 전문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사회과학전선(社會科學戰線)』은 지린성 사회과학원이 주최하는 종합 인문

사회과학 학술지이다. 이 잡지는 “학문을 근본으로 하고, 풍조를 개척하는 데 앞장서자”라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사회과학전선(社會科學戰線)』은 고구려 연구 분야에서 뚜렷한 학문적 특색을 보여주며, 그 연구 맥락은 정치 거버넌스와 문명 상호작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고고학 실증과 문헌 고증의 깊이 있는 결합을 중시하며, 비각 문자와 사서의 상호 증명, 왕성과 왕릉의 고고학 보고서를 통해 전통 왕계 계보와 수도 이전 시간대를 수정한다. 연구 관점에서 이 저널은 단일 역사 서사를 돌파하여 고구려와 중원 왕조의 복잡한 상호작용에 주목하면서도 돌궐, 유연, 신라와의 연동 관계를 깊이 있게 탐구하여 동북아 변강 역사 연구의 거시적 구도를 구축했다. 물질문화 연구는 이 잡지의 또 하나의 중점 방향으로, 미시적 측면에서 고구려가 중원 문화를 흡수하고 현지화 혁신을 이루었음을 보여준다. 『연변대학 학보(延邊大學學報)』는 연변대학이 주최하는 종합 인문 사회과학 학술지로, 장기간 동북아 지역의 역사 문화와 민족 관계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 왔다. 고구려 연구 측면에서 이 잡지는 연변대학교의 지리학적 우세와 학문적 전통을 바탕으로 사료 고증과 이론적 사변 결합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고구려의 정치 제도, 사회 구조, 대외 관계, 왕실 결혼, 민족 정체성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그 특징은 역사 문헌과 고고학 자료, 중국 학술과 한반도 연구 전통의 융합, 고구려와 중화 문명의 관계에 대한 논의 중시, 변방 민족의 연구 특색과 북·중 상호작용의 시각을 뚜렷하게 나타내며 고구려 연구의 중국화, 토착화, 합리화 추진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표 2] 고구려 연구 주요 학술지 및 수록한 논문 수<sup>21)</sup>

학술지 이름	논문 수	전체 중 참여하는 비율	주관 기관
地域文化研究(原《东北史地》)	293	12.16%	吉林省社會科學院
通化师范学院	152	6.30%	通化師範學院
北方文物	127	5.27%	黑龍江省文物考古研究所
社會科學戰績	101	4.19%	吉林省社會科學院
中國邊疆史地研究	58	2.41%	中國社會科學院 中國邊疆研究所
考古	53	2.20%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延边大学学报(社会科学版)	52	2.16%	延邊大學

21) 고구려 연구 논문 수는 집계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다. 예를 들어, 刘毅와 周利는 『地域文化研究』(『东北史地』)에 2004년부터 2024년까지 게재된 고구려 연구 논문을 305편으로 파악한 바 있다(刘毅·周利, 2024, pp. 61-76).

### Ⅲ. 중국 학계의 고구려 연구의 핵심 저자와 주요 연구 기관의 분석과 소개

#### 1. 핵심 저자

계량학적 방법으로 핵심 연구자의 학술 생산성을 측정하면 해당 연구 분야의 전반적인 학문적 생산 특성을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다. '프라이스법칙(Price Law)'<sup>22)</sup>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COOC 계량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2634편의 문헌 데이터를 분석하였고, 그중 6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한 연구자를 핵심 학술 집단(Core Academic Group)으로 정의하였다. 분석 결과, 이러한 학자는 전체 연구자의 약 9.7%를 차지하며, 학술 결과 이바지 정도는 전체 문헌 영향력의 62.3%에 달하고 문헌 집중 분포 법칙에 부합하여 학술 생태 구조 관찰의 핵심 지표로 사용될 수 있다. 계산에 의하면 핵심 저자는 총 60명이며, 총 734편의 저널 논문(예: [표 3])을 발표하였으며, 이는 전체 관련 논문의 27.87%를 차지하여 현재 이 분야에서 핵심 저자 그룹이 이미 형성되었음을 시사한다.

고구려 연구 분야에서 핵심 저자를 중견 핵심 저자, 준 핵심 저자와 주변 핵심 저자로 구분한다. 핵심 저자의 전체 논문 발표량 분포는 학술 생산의 '핵심-주변(core-periphery)' 구조를 반영하고, 연구의 집중성과 다양성이 결합한 특징을 보인다. 중견 핵심 저자 중에서 경철화(耿铁华)는 총 55편의 논문을 발표량으로 크게 앞서 고구려 연구 분야에서 권위적인 위치를 확립했다. 그의 연구 성과는 고구려의 정치, 문화, 고고학 및 비문(碑文) 해석 등 다양한 주제를 포함하고 있다. 손위염(孫煒冉, 34편), 양군(楊軍, 31편) 등 다작 연구자(highly productive scholars)들은 특정 주제에 관한 심층 연구를 통해 이 분야에 풍부한 학문적 축적을 제공했다. 이들의 연구는 일반적으로 역사 문헌과 고고학적 성과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고구려의 사회 발전을 더욱 전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다차원적인 시각을 주었다. 논문 발행 수가 10~30편인 '준 핵심 저자(次核心作者)' 그룹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들은 연구 방향을 비교적 명확하게 설정하여 종종 특정 분야나 세분화된 주제를 집중적으로 연구하며, 학술 연구의 중추 역할을 담당한다. 이들은 연구의 범위의 확장을 촉진하는 동시에, 지역 문제나 학제 간 융합 연구에서 중요한 이바지를 하였다. 예를 들어, 고구려 연구 분야의 위존성(魏存成)과 장비파(張碧波)는 국경 고고학과 민족 관계사를 깊이 있게 연구하여 동북아시아 고대 문명 연구의 기초 틀을 구축했다. 범은실(范恩實), 이대룡(李大龍) 등 학자들은 이론 모델의 반복적인 혁신을 통해 역사 지리학과 정치 인류학의 교차 연구에 방법론의 돌파구를 제공했다. 그들의 성과는 탄탄한 사례 축적과 학문적 대화 능력으로 일정 기간의

22) 프라이스 법칙의 공식은:  $m = 0.749 \times \sqrt{n_{max}}$ ,  $m$ 은 핵심 저자의 최소 논문수이며,  $n_{max}$ 은 발표량이 가장 많은 저자의 논문수이다. 발표량이 가장 많은 연구자는 경철화로 알려져 있으며 55편의 논문을 발표했다. 따라서  $m = 0.749 \times \sqrt{55} \approx 0.749 \times 7.416 \approx 5.55$ ,  $m \geq 6$ 이다. 이에 따라 누적 논문 발표량이 6편을 초과하는 연구자를 해당 분야의 핵심 학술 집단으로 정의한다. 참고: 邱均平, 2022, 96~98쪽.

학문 맹점을 보완했으며, 특히 지역 지식 체계 구축과 이슈화되지 않은 분야 탐색에서 대체할 수 없는 초석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문헌 계량학의 한계를 보여주기도 하며, 성과의 수가 학문적 이바지에서 실제적인 깊이 있는 가치와 확산력을 완전하게 측정할 수는 없다. 논문 발행 건수가 10편 이하인 주변 저자들은 학문 생태계의 '모세혈관'으로서 독특한 접근 시점과 학제 간 융합 능력으로 고구려 연구의 혁신 동력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일부 학자들은 신화 기호학의 관점에서 고구려 건국 전설을 해석하거나 예술 고고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벽화 속 의상 제도와 사회 구조를 재현했다. 이러한 연구는 전통 사학의 틀을 깨고 지역 문명을 동아시아 문화 상호작용 네트워크에 배치하여 해석을 진행했다. 젊은 학자들은 특히 이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 혁신성은 방법론적 측면에서 나타난다. 어떤 사람들은 가상 현실 기술을 사용하여 산성 방어 체계 재건을 시도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GIS 시스템을 통해 고구려 무덤군의 시공간 분포 법칙을 추적하기도 한다. 비록 그들의 성과가 아직 규모 경제를 이루지는 못했지만, 고구려 연구에 디지털 인문 등 현대 연구 패러다임을 주입했으며, 그 가치는 종종 후속 주요 과제 해결에서 드러난다.

핵심 연구자의 논문 발행 분포는 연구 기관의 자원 우위(resource advantage)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다작 학자들은 주로 대학교 및 연구 기관에 집중되어 있으며, 대표적인 기관으로는 통화사범대학교(通化師範大學), 동북사범대학교(東北師範大學) 등이 있으며 이러한 기관들은 학술 연구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 제공한다. 핵심 저자들은 연구 프로젝트를 주관하고, 대학원생을 지도하며, 국제 협력에 참여하는 등의 다양한 형태로 견고한 학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 분야의 지속적인 발전을 촉진하고 있다. 비록 현재 고구려 연구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학문 체계를 초보적으로 구축한 상태이지만, 준 핵심 저자와 주변 저자들의 연구 방향이 다소 분산되어 있어 연구의 깊이와 지속성에서 여전히 개선할 여지가 있음을 보여준다. 앞으로, 핵심 저자들의 선도적인 역할과 젊은 학자들의 창의적 연구가 결합한다면, 이 분야가 기초 연구와 학제 간 융합에서 더 큰 발전을 이룰 것으로 기대되며 고구려 역사와 문화를 전면적으로 이해하는 데 더 크게 이바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표 3] 고구려 연구 핵심 연구자 및 발표한 논문 수

핵심연구자	논문수	핵심연구자	논문수	핵심연구자	논문수	핵심연구자	논문수
耿铁华	55	高福顺	14	迟勇	9	李磊	7
孙炜冉	34	王绵厚	14	梁启政	9	周向永	7
杨军	31	孙仁杰	13	傅朗云	9	孙进己	7
张福有	28	范恩实	13	赵红梅	9	朴灿奎	7
魏存成	23	李殿福	12	张博泉	9	李爽	7
张碧波	22	李乐营	12	韩昇	9	都兴智	7
刘子敏	20	李春祥	12	郑春颖	8	王连龙	6
李德山	17	秦升阳	12	拜根兴	8	孙玉良	6

姜维东	17	冯立君	11	方起东	8	赵福香	6
苗威	16	李新全	11	王飞峰	8	王欣媛	6
梁志龙	16	李健才	11	李龙彬	8	薛海波	6
姜维公	15	董健	11	徐德源	8	马大正	6
王禹浪	15	刘炬	11	张国庆	8	朱尖	6
李大龙	15	尹国有	10	王纯信	8	高於茂	6
祝立业	14	李淑英	9	王旭	7	杨璐	6

## 2. 주요 연구 기관

고구려 연구 논문 발행 기관 [표 4]<sup>23)</sup>의 분포는 해당 분야 연구의 지역 집중성과 학술 자원의 다양성을 반영한다. 고구려 관련 연구 프로젝트의 전체 착수 상황이 완전하게 공개되지 않아 정확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없으며, 주요 기관에 대해 간략한 소개를 하는 수 밖에 없다.<sup>24)</sup>

통화사범대학교는 고구려 유적지 핵심 지역에 있고, 지리적 우세와 정책 지원을 바탕으로 고구려 연구원을 핵심 플랫폼으로 하여 체계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69편의 논문 발표량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 연구원은 1995년에 설립된 중국 최초의 고구려 연구소로, 2006년 확장 이후 고구려와 동북 민족 역사에 초점을 맞추어 동북 고대 사상 문화사와 세계 문화유산 보호 분야로 확장되었다. 현재 구려 문화 연구 기지, 고구려와 동북 민족 연구 센터, 고구려 문제 연구 협동 혁신 센터, 고구려 문제 연구 싱크탱크, 고구려 연구 싱크탱크 건설 혁신 팀, 세계문화유산 보호 및 연구 실험실 등 6개의 성급 중점 연구 플랫폼이 있는데 다학제 협동 연구 체계를 형성하였다. 역사 및 지리 대학, 장백산 문화 연구 기지와 기타 학술 자원을 결합하였고 그 연구 결과는 유적 보호, 민족 관계 및 문화유산의 디지털화를 포함한다. 특히 태왕비, 고구려 왕릉과 귀족묘지, 고구려 고분벽화, 고구려 와당, 고구려 고성 방어체계 및 국경 간 문화유산 보호 등의 분야에 관한 연구에 능하다.

연변대학교는 중국 학계의 고구려 연구 분야에서 학문적 기초를 다지는 역할을 하고 있다. 교육부에 등록된 북한 한국연구센터와 지린성 중점 연구기지인 고구려 발해연구센터 등

23) 이 표는 CNKI 데이터베이스에 표시한 연구자가 소속된 직장과 기관에 근거하여 작성하였다. 그러나 통계에 포함된 기간이 비교적 길기 때문에 기관의 명칭에 변화가 있을 수 있어 사용했던 명칭이 현재와 다를 수 있다.

24) 통계에 따르면, 본 논문의 논문 샘플은 총 312개 기관에서 왔으며, 그 중 많은 기관에서 1-2편의 문서만 발행했다. 브래퍼드의 법칙은 모든 기관을 기사 양에 따라 3개의 영역으로 구분하고 각 영역의 기사 수는 대략 동일하며 각 영역에 포함된 기관의 수는 대략  $1:n:n^2$ 의 비율이다. 이 기사의 저널 논문 샘플은 2,410편으로 전체 문헌의 1/3을 차지하는 803편이다. 약 803편이 넘을 때까지 학술지 논문 수를 누적한다. 803편의 논문은 약 40여 개 기관에서 추출하였다. 수량이 너무 많아 7편 이상의 문서를 발행한 기관만 선택하여 통계하였고 이 기관들을 주요 기관이라고 한다. 참고: 邱均平, 2022, 96-98쪽.

기관을 기반으로 지리적 및 언어적 우세를 활용해 지역 간, 문화 간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학교는 고구려 역사 이론 체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여러 국가급 및 성급 과학 연구 프로젝트를 주관하며, 중·조·한 삼국의 고구려 유적 문헌을 주도적으로 정리하고 국경 간 문화유산 디지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이 분야에서 중국의 국제적 발언권을 현저히 향상했다. 지방 정부의 정책 지원을 통해 연변대학교와 남북 학계는 공동으로 고구려 유물 조사 및 학술 교류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국경 간 문화유산 보호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 철학사회과학 연구으로부터 대형 위탁 사업 '한반도 고구려 유적 및 저술 정리 및 연구', 국가 사회과학 기금 대형 연구 사업 '한반도 고구려·발해 고고학 자료 수집·정리' 등 여러 등급의 중요한 프로젝트를 승인받았다. 『옥도리-북한 남포시 용강군 옥도리 일대 역사 유적(玉桃里——北韓南浦市龍岡郡玉桃里一帶的歷史遺跡)』, 『평양 지역 고구려 도성 유적(平壤地區高句麗都城遺跡)』 등 중요한 학술 저서를 출간하였다. 기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연변대학교는 고구려 역사 지리, 국경 간 문헌 정리, 중의 문화 비교 및 변방 관리 연구로 뛰어난 성과를 보인다. 인재 양성 측면에서는 학부, 석사, 박사, 박사후과정까지 복합적으로 운영하여 조선사, 조선 한국사, 조선 고대사, 고대 중국 조선 관계사, 중국 조선 한국 일본 관계사, 동북아사, 동북아 국제 관계 등의 과정을 개설하여 고구려의 역사와 문화를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동북아시아 연구에 특화된 학자들을 대거 양성함으로써 중의 학계의 고구려 연구의 가교이자 전진 기지로서의 입지를 지속적으로 공고히 하고 있다.

중국의 중점 대학교 중 하나인 길림대학교는 강력한 역사 및 고고학 학문 배경을 가지고 있다. 고고(考古) 대학, 문학부, 동북아연구원을 기반으로 고구려 발해 고고학, 고구려 발해 역사, 한반도 문제 등 3개의 연구팀을 구성했다. 고구려 고고학 기초 및 문화 전과 경로에 중점을 두고, 고구려와 발해의 연계성 연구를 중점적으로 진행하며, 학술 연구의 포괄성과 깊이를 보여주고 있다. 동북사범대학교는 문학원과 고서 연구에 의존하여 고구려의 전승 문헌 정리를 맡아왔으며, 고구려 역사와 동북 민족과의 관계 연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핵심 방향은 역사적 인물과 정치 제도, 종교 신앙, 사회 구조 및 도성 지리이며 고구려의 왕세 계통 해석, 오부 제도 변화, 불교 도교 전과 경로 등의 주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장춘사범대학교는 고구려 연구의 후발 주자로서 최근 급속한 발전을 이루었다. 학교에는 고구려 발해 연구원이 있으며, 연구원은 동북 변강사지 연구센터와 동북 민족과 강역 연구센터 두 플랫폼을 기반으로 고구려 발해 연구에 집중하여 동북 민족과 강역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해당 연구원의 핵심 연구는 고구려와 중원 왕조의 관계 및 문화 기호학적 해석, 예를 들어 고구려 복식 연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연구팀은 국가급 프로젝트 10여 건과 성급 프로젝트 20여 건을 담당하며, 국내에서 '고구려 발해 문제' 관련 프로젝트 수가 가장 많고 프로젝트 수준이 높은 팀 중 하나이다. 랴오닝대학교, 랴오닝사범대학교 등은 역사학부와 동북아 연구 플랫폼을 활용하여 요동 지역과 고구려 역사 간의 상관성 연구에서 학술 성과를 이바지했다.

동북 지역 외에, 베이징, 상하이 등지의 대학교와 연구 기관들도 고구려 연구에 이바지

하고 있다. 중국사회과학원은 국가 연구 기관으로서 고구려 연구의 이론 혁신에 크게 이바지했다. 고고학연구소와 역사연구소 등 부서들은 풍부한 학술 자원을 통합하여 고구려 역사, 문화 및 고고학의 체계적인 연구를 추진하였다. 특히 변방사지연구센터와 해당 연구원이 주관하는 정기 간행물 『중국변강사지연구(中國邊疆史地研究)』, 『중국변강학(中國邊疆學)』, 그리고 고고학연구소가 주관하는 『고고학(考古)』 등을 통해 고구려의 역사 변천 및 주변 국가와의 상호작용을 심도 있게 탐구하며, 학술 교류의 틀을 구축하였다. 중국 사회과학원 한국연구센터 등 기관의 국제 협력은 한국 학자들과의 교류를 강화하여 중한 양국의 고구려 역사 및 문화유산 분야에서 공동 연구를 촉진하였다. 북경대학교는 고고문박대학(考古文博學院), 중국 고대사연구센터 등과 협력하여 고고학과 역사학 분야의 연구에서 고구려 연구에 풍부한 학술 자원을 제공해 주었다. 복단대학교는 역사 지리연구센터와 문사연구원(文史研究院)을 통해 고구려 역사가 공간구조와 문화의 상호작용 측면에서의 연구에 중점을 두고 있다. 섬서사범대학교는 고구려 연구 분야에서 변방 정권의 상호작용과 유민의 이주 영향을 핵심 방향으로 하여 국제적인 시각을 가진 연구 특색을 형성했다. 연구팀은 동아시아 지정학적 관점에서 수당 시대 중원 왕조와 고구려, 돌궐의 연동 관계를 체계적으로 탐구하고, “중원-초원-요동(中原-草原-遼東)” 삼각 동적 구도의 복잡성을 드러냈다. 유민 연구 측면에서 이 학교 학자들은 고구려 멸망 후 이민자들의 해상 이동에 초점을 맞추어 역사 문헌과 비각을 분석하여 7세기 중엽 고구려 유민의 당나라 거주 상황, 정치적 지위 및 문화적 영향을 고증했다.

지방 연구 기관인 길림성 사회과학원, 길림성 문화 유물 고고학 연구소 등도 적극적으로 관련 연구를 진행하여 고구려 역사 문화가 지방 차원에서 보호되고 전승되도록 촉진했다. 길림성 사회과학원은 길림성 내의 고구려 연구 업무를 총괄하는 핵심 기관으로서 정책 수립, 학술 기반 구축, 성과 전환 등에서 체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길림성의 고구려 연구에 관한 중점 계획을 수립하고, 성 내 대학 및 연구 기관 자원을 통합하며, 팀 구축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 및 교류 활동을 전개하는 것을 담당한다. 학술 진지 건설 분야에서 길림성 사회과학원이 주도하여 설립한 ‘고구려 발해 연구회’는 연구의 규범화를 추진하였으며, 학술 표준을 제정하고, 주제별 세미나 및 국경 간 협력 프로젝트를 조직함으로써 중외 학계 대화를 촉진하였다. 길림성 사회과학원이 주관하는 『지역문화 연구(地域文化研究)』와 『사회과학전선(社會科學戰線)』 두 권의 학술지는 국내외 학자들이 성과를 교류하는 중요한 창구이다. 길림성 문화 유물 고고학 연구소는 고구려 관련 문화의 고고학 발굴과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이미 발굴된 만발발자 유적(萬發拔子遺址), 간구자 묘군(幹溝子遺址), 한서 유적(漢書遺址), 모아산 묘군(帽兒山墓群), 동단산 유적(東團山遺址), 환도산성 성터, 서고성 성터 등 고구려와 관련된 유적들은 동북 지방의 고고학 문화 연구에 없어서는 안 될 학술자료가 되어 동북아 지역의 고고학 문화의 총체적 판도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실물 자료가 되고 있다. 그중 통화 만발발자 유적(萬發拔子遺址)과 연변 서고성 유적 발굴은 각각 “1999년도 전국 10대 고고학 신발견”, “2002년도 전국 10대 고고학 신발견”에 선정되었다. 2002년부터는 고구려 유적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대한 고고학적 발굴과 연구를 구체적으로 맡아 길림성 지안시의 고구려

왕성, 왕릉 및 귀족 묘지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학술 연구 및 연구 성과 측면에서 『통구 고분군(洞溝古墓群)』, 『국내성(國內城)』, 『환도산성(丸都山城)』, 『집안 왕릉, 왕성 및 귀족 무덤(集安王陵、王城及貴族墓葬)』 등 여러 편의 고고학 보고서가 출판되었다.

각 기관 산하에 설치된 연구 기관의 다양성과 목적성은 고구려 연구의 학문 체계화와 다 학제적 융합을 가능하게 하였다. 동북 지역의 기관들은 지역 자원과 지정학적 문화의 결합을 통해 연구의 핵심 동력이 되고 있으며, 전국적인 기관들은 학제 간 융합과 이론 방법의 결합을 통해 해당 분야에 더 넓은 학술적 시각과 심층적인 연구 동력을 주입하고 있다.

[표 4] 중국 고구려 연구의 주요 연구 기관

연구 기관	논문 편수	관련 부서
通化师范学院	69	高句丽研究院、历史与地理学院、美术学院传媒学院、国际教育学院、图书馆、科研处、长白山文化研究基地、高句丽与东北民族研究中心、体育学院工商管理系、教育科学系、历史系、历史地理系、美术系
延边大学	51	人文社会科学学院、朝汉文学院、师范学院、艺术学院、朝韩研究中心、朝鲜半岛研究院、农学院、东北亚研究院、经济管理学院、朝鲜历史研究所、朝鲜问题研究所、民族研究所、渤海史研究所、语言文化研究所、东疆学刊编辑部、图书馆、中朝韩日文化比较研究中心、历史系
吉林大学	49	文学院、考古学院、艺术学院、行政学院、管理学院、哲学社会学院、古籍研究所、人口研究所、边疆考古研究中心、国家治理与协同创新中心、历史系、考古学系、文物陈列室、国际政治系
中国社会科学院	37	考古研究所、历史研究所、研究生院、边疆史地研究中心、中国边疆史地研究中心杂志社、比较文学中心、哲学系、中国社会科学院哲学研究所、韩国研究中心、世界宗教研究所
东北师范大学	33	历史文化学院、外国语学院、城市与环境学院、古籍研究所、党委宣传部、教育学部、东北民族与疆域研究中心、中文系
吉林省社会科学院	28	高句丽研究中心、历史研究所、朝-韩研究所、民族学研究所、《东北史地》杂志社、《地域文化研究》编辑部、图书馆
长春师范大学	28	历史文化学院、东北亚历史文化研究所
黑龙江省社会科学院	24	历史所、文学研究所、民族研究所
北京大学	16	考古文博学院、外国语学院、国际关系学院、考古学系、历史系、东语系、政治学与行政管理系、东方学系、中国古代史研究中心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15	高句丽研究中心、历史研究所、朝-韩研究所、民族学研究所、《东北史地》杂志社、《地域文化研究》编辑部、图书馆
复旦大学	12	文史研究院、韩国研究中心、历史地理研究中心、历史系
中央民族大学	12	历史文化学院、民族学研究院、民族学与社会学学院、外国语学院、管理学院、民族学系、日语系、语言文学系、
大连大学	11	东北亚研究院、中国东北史研究中心、辽东史地研究所、音乐学院

辽宁大学	9	历史学院、经济学院、日本研究所、历史系
辽宁师范大学	8	历史文化旅游学院、城市与环境学院、文学院、历史系
黑龙江大学	7	历史文化旅游学院、满学研究院、艺术学院、黑龙江流域文明研究中心、历史系
陕西师范大学	7	历史文化学院、东亚历史研究所
吉林师范大学	7	图书馆、中国思想文化史研究所、中文系

CiteSpace와 VOSviewer를 통한 고구려 연구 분야 분석에 따르면 핵심 저자의 협력 네트워크 밀도는 0.0006, 기관 간 밀도는 0.0005(모두 밀도 임계값 0.1보다 현저히 낮음)에 불과했다. 네트워크의 밀도가 0에 가까울수록 학술 공동체에서 연구자 또는 기관의 협력 연관성이 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 학계는 큰 노력을 기울였지만, 실제 데이터를 보면 현재 고구려 연구 분야에는 여전히 협력 부족 문제가 존재하며, 구체적으로는 학자의 고립된 연구와 기관의 자원 분산이 나타나고 있다. 공동 실험실 설립, 주제 데이터베이스 공유 플랫폼 구축 추진, 제도적 보장을 통해 학자 연동 연구 및 기관 간 프로젝트 공동 신청을 촉진하는 등 영역 간 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학술회의를 기반으로 정기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연구 협력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 IV. 중국 학계의 고구려 연구 초점과 중심 주제 분석

##### 1. 고구려 연구 초점

본 연구에서 다룬 2,634편의 논문 중, 키워드 순위에서 상위 60개의 키워드와 그 출현 빈도를 [표 5]로 정리하여 해당 분야의 연구 초점과 이슈를 반영하였다.

VOS viewer가 정리한 키워드 분포를 살펴보면, '고구려'는 784회의 높은 빈도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면서, 고구려가 연구의 핵심으로서 집중되고 있음을 부각했다. "백제"(64회)와 "신라"(62회)가 그 뒤를 이었는데, 이는 고구려 연구가 한반도 삼국 시대의 역사적 구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발해"(46회)와 "한반도"(45회) 등의 키워드는 고구려 멸망 후의 지역 질서의 변화와 발해의 등장 및 발전에 대한 학계의 관심이 높다는 점을 반영하며, 고구려 역사가 동북아 역사에서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는 것을 시사한다. 문화 및 고고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벽화"(18회), "고구려 벽화"(19회) 등의 키워드는 고구려 무덤 벽화에 대한 연구의 활발함을 보여준다. 이와 관련된 "산성(山城)"(21회), "고구려 산성"(11회) 등의 키워드는 고구려의 방어 시스템, 도성 선정 및 지리적 공간 활용에 대한 연구의 초점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불교"(26회), "문화"(21회), "중원 문화"(12회) 등의 키워드는 고구려 문화의 다양성과 중원 문화의 영향에 대한 학계의 관심을 나타내며, 고구려가 문화 교류와 융합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반영한다. "전쟁"(14회), "수당"(15회) 등의 키워드의 등장은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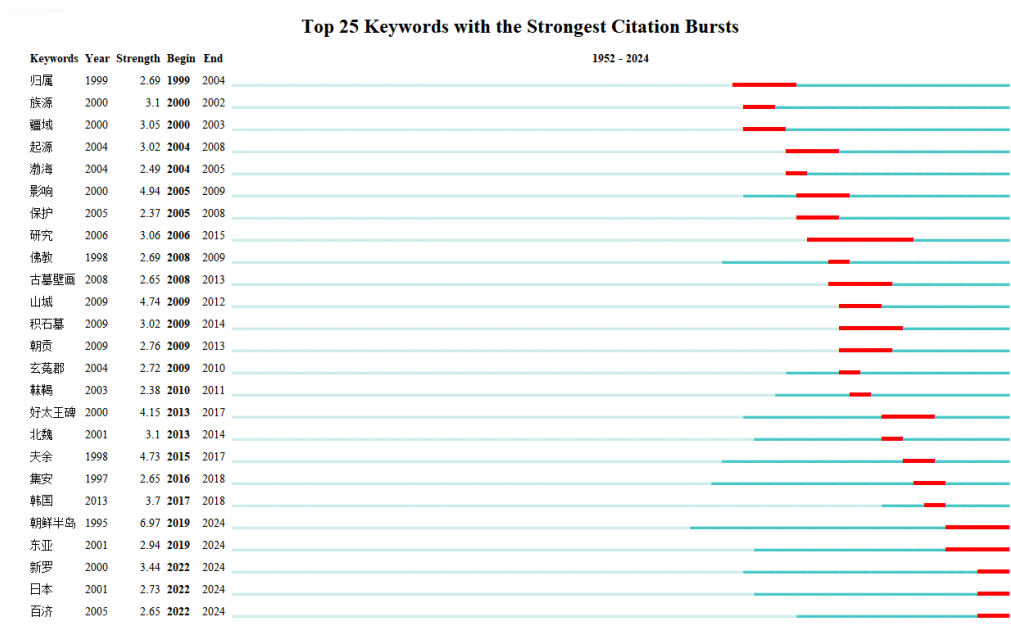
국 학계가 수당 시대 중원 왕조와 고구려 간의 전쟁과 그 역사적 영향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음을 보여주며, 한편으로는 고구려가 동아시아 국제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보여준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호태왕비“(27회), “국내성“(20회), “현도군“(17회) 등의 키워드가 고구려의 고고학적 문헌과 역사 지리학적 측면에서 중요한 발견을 부각하고 있고, 이는 고구려 역사를 진일보로 복원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영향“(28회), “전파“(10회) 등의 키워드는 고구려의 문화유산과 그것이 후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학계의 연구가 점차 심화하고 있으며, 문화 교류와 역사 전파의 거시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5] 중국 고구려 연구의 주요 키워드 및 빈도

키워드	빈도	키워드	빈도	키워드	빈도
高句丽	784	渤海国	20	朱蒙	11
百济	64	高句丽壁画	19	高句丽山城	11
新罗	63	韩国	19	高句丽语	11
渤海	46	朝鲜	19	壁画墓	11
朝鲜半岛	45	壁画	18	年代	11
唐朝	45	玄菟郡	17	移民	11
夫余	41	朝贡	17	起源	11
集安	36	北魏	17	族源	11
《三国史记》	29	丸都山城	16	积石墓	11
影响	28	特点	15	民族	11
日本	28	隋唐	15	历史	11
好太王碑	27	隋炀帝	14	高句丽文化	10
佛教	26	战争	14	古墓壁画	10
靺鞨	23	辽东	14	价值	10
山城	21	隋朝	13	东北	10
东北亚	21	东亚	13	都城	10
文化	21	东北地区	13	传播	10
研究	21	中原文化	12	高丽	10
国内城	20	世界文化遗产	12	墓室壁画	10

Cite Space의 계산에 따라 제작한 [그림 3]은 1952~2024년 사이 중국 학계에서 고구려 연구 분야의 키워드 돌출 강도와 시간 분포를 보여주며, 고구려 연구의 학술적 초점과 변화 추세를 반영한다. 시간적 차원에서 보면, 2000년 이후 고구려 연구는 점차 학술 초점이 되었으며, 여러 키워드가 뚜렷한 돌출 현상이 나타나 연구의 지속적 심화와 확장을 보여준다. “족원(族源)“ “강역“, “기원“ 등의 키워드(2000-2008년)는 고구려의 역사적 기원, 지리적 범위 및 민족 기원 문제에 대한 학계의 관심을 반영하며, 이는 본 연구의 기초적인 주제로 후속 연구의 방향을 마련하였다. 2008-2013년에 들어서면서 “불교“ “고분벽화“, “산성“, “적석묘“ 등의

키워드가 주목받으면서 학자들이 고구려의 문화유산과 종교 신앙의 물질적 표현, 특히 고분 벽화와 산성 등의 고고학적 연구에 관심을 두게 됨으로써 고구려의 문화적 특성을 탐구하는 실증적 근거를 제공했다. 2010년 이후에는 “호태왕비“, “북위(北魏)“, “부여“ 등의 키워드가 등장하면서 고구려의 정치, 문화와 주변 지역 간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가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고구려가 동아시아 역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부각했다. 2017년 이후에는 “한국“, “한반도“, “동아시아“ 등의 키워드가 주목받으면서 고구려 연구가 점차 개별 역사 탐구에서 지역적, 국제적 시각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학계는 고구려 문화가 동아시아 역사에서의 흐름과 영향을 더 거시적인 지역 역사적 관점을 통해 해석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세계사와 지역 연구의 학문적 흐름과 맞물린다. 주목할 만한 점은 2022년에 “백제“의 출현은 고구려와 백제 간의 상호작용 관계에 대한 학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며, 이는 동아시아 고대사 연구의 새로운 확장 방향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그림 3] 고구려 연구 키워드 전시도

## 2. 중심 주제

Cite Space를 통해 중국 학계의 고구려 연구 키워드를 분석한 결과, [표 6]과 같이 15개의 클러스터가 형성되었다. 그림의 모듈값 Q=0.743은 표준값 0.3보다 크며, 평균 윤곽값 S=0.9681은 표준값 0.7보다 크다. 클러스터링 구조가 뚜렷하며, 클러스터링 결과는 신뢰할 수 있다.<sup>25)</sup> 15개의 클러스터 각각 #0 고구려, #1 신라, #2 부여, #3 한반도, #4 환도산성, #5

한국, #6 불교, #7 지안, #8 발해, #9 북위, #10 호태왕비, #11 발해국, #12 난점, #13 묘지명, #14 예방적 보호이다. 전체 윤곽 값에 따르면, 대부분 클러스터의 윤곽값은 0.85 이상으로 클러스터링 효과가 비교적 좋고, 주제 분포가 명확하며, 연구 방향이 뚜렷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가장 큰 클러스터링은 #0 고구려(규모 171, 윤곽값 0.975)로, 전체 연구에서의 핵심적인 위치를 반영한다. 규모가 작은 클러스터링인 #13 묘지명(규모 4, 윤곽값 0.998)과 #14 예방적 보호(규모 4, 윤곽값 0.999)는 규모는 제한적이지만 윤곽 값은 1에 가까워 클러스터 품질이 높아 이 분야의 높은 연구 전문성과 독립성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표 6] 중국 학계 고구려 연구의 키워드의 군집 명칭, 규모 및 윤곽 값 통계표<sup>26)</sup>

군집 순서	군집 명칭	군집 규모	윤곽치	군집 내 키워드
#0	高句麗	171	0.975	山城;积石墓;朝鮮半島;百濟
#1	新羅	58	0.833	百濟;唐朝;北齊;朝貢
#2	夫余	42	0.861	穆貊;族源;使者;五部
#3	朝鮮半島	39	0.89	中朝邊界;東亞;高句麗;歷史
#4	丸都山城	36	0.944	國內城;東北地區;東北亞;尉那岩城
#5	韓國	36	0.95	中國;朝鮮;高句麗;傳播
#6	佛教	29	0.935	佛教;壁畫;道教;冠帽;體育史
#7	集安	29	0.97	高句麗碑;價值;文化遺產;造型
#8	渤海	29	0.85	渤海;靺鞨;族屬;分期;歸屬
#9	北魏	29	0.88	新城;北燕;良民;平壤
#10	好太王碑	29	0.902	研究;始祖傳說;世系;唐太宗
#11	渤海國	20	0.95	人地關係;人口;特點;變遷
#12	难点	8	0.993	圖們江;方法翻譯實踐;案例分析
#13	墓志	4	0.998	東漢王朝;唐代移民;史料價值;戰事
#14	預防性保護	4	0.999	博物館化;保護與利用;原址保護;壁畫墓

연구 초점 및 키워드 클러스터링을 기반으로 고구려 연구의 네 개의 주요 주제를 다음과 같이 확정할 수 있다. 각각 “고구려 유적지와 문화유산 연구“, “고구려의 지역 교류와 역사 문화의 관계“, “고구려의 사회 변화와 정치 구축“, “고구려 신화, 종교 및 예술 연구“이다.

25) Q수치는(Modularity)클러스터 구조의 선명성을 측정함에 쓰인다. 수치가 높을수록 (0.3유효함)클러스터 내부의 연관성이 긴밀하다. S수치는(Silhouette)클러스터의 합리성을 측정함에 쓰인다. 수치가 높을수록 (0.7유효함)클러스터 내부의 유사도가 높다는 것을 설명한다. 陳悅·陳超美·劉則淵, 2015, 242~253쪽.

26) 클러스터 #8 “발해“는 민족 속성, 역사적 시기 등 기초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클러스터 #11 “발해국“는 정권 특성과 사회 진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학문적 관점의 차이와 연구 대상의 시공간적 범위의 차이는 분류의 필요성에 이바지했다.

구체적인 분석은 아래와 같다.

### 1) 고구려 유적지와 문화유산 연구

이 주제 아래에는 클러스터 #0 고구려, #4 환도산성, #13 묘지명, #14 예방적 보호가 포함된다. 주요 키워드로는 산성, 적석묘, 환도산성, 벽화, 묘지명, 예방적 보호, 박물관화 등이 있다. 연구 내용은 주로 고구려 유적지의 발굴, 보존, 보호와 문화적 의미 해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환도산성, 국내성과 같은 고구려 산성은 고구려의 도성과 군사 방어 시스템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 고구려의 산성 건축 기술에서의 뛰어난 성과를 보여준다. 산성 유적지의 고고학적 발굴은 고구려의 독특한 건축 양식과 도성 방어 시스템뿐만 아니라 고구려의 정치, 경제, 사회생활에 대한 물질적 증거를 제공하여 최근 도시 역사 연구의 일부가 되었다.<sup>27)</sup> 적석묘는 고구려의 장례문화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널리 분포되어 있으며 소형 무덤에서 대형 왕릉에 이르기까지 고구려 사회의 계층 분화와 장례 제도를 보여주고 있다.<sup>28)</sup> 고분벽화는 고구려 문화 예술의 대표적인 유적으로, 연구는 묘주의 생전 생활 장면, 종교 신앙, 우주관<sup>29)</sup> 등을 포함하며, 중요한 역사적, 예술적, 문화적 연구 가치를 지니고 있다. 묘지명과 비문 등의 자료는 고구려 문화 연구의 텍스트 근거를 더욱 풍부하게 했다. 묘지명은 묘주의 신분, 공적, 가문의 배경이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고구려의 사회 계층, 관제 구조, 정치 문화의 특징이 반영되어 있다. 묘지명의 문자 해석 및 역사 자료와의 비교는 점차 고구려 연구의 핵심적인 과정으로 자리 잡고 있다. 중국 학계는 묘지명을 출발점으로 고구려 역사 사건과 인물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파고들며<sup>30)</sup> “문헌 자료에 기록되지 않은 새로운 인물을 추가하고, 기존 인물 사건의 내용을 풍부하게 하여 기존 연구의 공백을 메웠다.”<sup>31)</sup>

고고학 기술의 발전에 따라, 예방적 보호는 고구려의 문화유산 보호에 중요한 의제(議題)로 떠오르고 있다.<sup>32)</sup> 고구려 유적지는 장기적인 자연 침식과 인위적 파괴 등의 위협에 직면해 있다. 중국 학계는 경험과 교훈을 쌓아가며,<sup>33)</sup> 유적지 조사와 보호에 디지털 모델링, 3D 스캔, 환경 모니터링 등의 첨단 기술을 도입하여, 유적지의 동적 모니터링과 위험 평가를 실현하고 문화재의 보존 주기를 연장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박물관화” 경로를 통해 고구려 유

27) 宋娟, 2015, 57~59쪽 ; 朱尖, 2017 ; 天姿, 2018.

28) 魏存成, 2016, 73~76쪽 ; 赵俊杰·马健, 2012, 85~91쪽 ; 田文童, 2023.

29) 耿铁华, 1986, 27~32쪽 ; 郑春颖·刘玉寒, 2015, :62~77쪽 ; 杨璐, 2021, 30~37쪽.

30) 赵振華·閔庚三, 2009, 21~33쪽 ; 葛繼勇, 2016, 143~148쪽.

31) 拜根興, 2013, 159~165쪽.

32) 戚欣·王新英, 2019, 1~4쪽 ; 樸玉順, 2024, 87~92쪽.

33) 高新來·郭豔敏, 2006, 82~83쪽 ; 馮楠·王蕙貞·宋迪生, 2010, 316~324쪽 ; 何滿潮·劉成禹·王樹仁 등, 2005, 2220~2224쪽 ; 褚金剛·吳炎亮·孫予航 등, 2022, 26~37쪽.

적지와 유물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전시하여, 대중의 시야에 들어오게 하며, 연구 학습 여행 발전에 적합하며 문화유산의 현대적 전파와 교육 보급을 촉진한다.<sup>34)</sup>

## 2) 고구려의 지역 교류와 역사 문화의 관계

고구려는 역사 발전 과정에서 주변 지역과 긴밀한 문화적, 정치적 유대를 유지하며 독특한 지역 교류 및 상호작용 시스템을 형성했다. 이 주제는 핵심 클러스터인 #1 신라, #3 한반도, #5 한국, #6 불교, #9 북위를 중심으로 “한반도, 신라, 불교, 한국, 문화 전파, 도교, 민족 교류” 등 고구려 문화의 광범위한 영향과 전파 경로를 보여주고 있다.

지리적 위치에서 고구려는 동아시아의 핵심 지역에 있으며, 북쪽은 중국 북부와 연결되고, 남쪽은 한반도와 접해 있으며, 신라, 백제 등과 인접해 있다. 정치적인 면에서 고구려는 북위와 같은 중원 정권은 복잡하고 변화무쌍한 관계를 유지했으며, 군사적 충돌과 외교적 교류를 통해 양측의 내부와 외부 정치 환경의 단계적 변화 특성을 간접적으로 반영하였다.<sup>35)</sup> 문화적 측면에서 고구려와 신라, 백제 등의 한반도 국가들은 빈번한 문화 교류를 형성하여 서로의 문화 발전과 융합을 촉진했다.<sup>36)</sup>

불교와 도교의 전파는 고구려 지역 문화 교류의 중요한 표현이다. 불교는 서기 4세기에 중원 지역을 통해 고구려에 전해졌고, 점차 백제와 고구려로 전파되어 사회 문화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 발전했다.<sup>37)</sup> 많은 불교 유적지와 불상은 고구려에서 불교의 번영을 반영한다. 벽화 속의 불교 이미지와 사찰 유적지의 고고학적 발굴 등은 모두 고구려 사회가 불교를 수용하고 개조했음을 입증한다.<sup>38)</sup> 도교 문화의 전파 역시 고구려의 종교 문화 체계를 풍성하게 했고, 일부 학자들은 “도교는 6세기 말 오두미교(五斗米教)를 통해 고구려로 전파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며,<sup>39)</sup> 본토 신앙과 융합하여 독특한 정신세계를 형성했다. 이러한 종교 문화의 전파는 고구려를 통해 한반도 남부와 일본으로 확산했고, 백제, 신라, 일본의 문화 체계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sup>40)</sup>

민족 교류와 이주에 있어, 고구려와 주변 정권 간의 정치적, 문화적 연대가 심화함에 따라 인구 이동은 문화 전파를 가속화하고, 지역 문화의 통합 추세를 더욱 심화시켰다. 고구려와 남북조 시기 중원 왕조의 문화적 상호작용도 주목할 만하다. 양측은 외교와 전쟁 등을 통해 장기적인 관계를 유지했으며, 문화 교류의 흔적이 뚜렷하게 드러났다. 중원 왕조의 문화, 민

34) 黃劍鋒, 2015 ; 朱尖, 2018, 1032~1036쪽 ; 金芸竹, 2020.

35) 常樂, 2014 ; 李爽, 2018, 147~153쪽 ; 嚴可, 2021, 23~40쪽.

36) 楊璐, 2018.

37) 潘暢和 · 李海濤, 2009, 63~68쪽.

38) 李樂營 · 孫煒冉, 2013, 12~15쪽 ; 王聰, 2023, 74~76쪽.

39) 刘伟, 2014, 21~23쪽.

40) 孫煒冉, 2020, 59~64쪽 ; 劉祁, 2018.

속, 제도 등은 고구려 사회에서 흡수되고 재창조되어 토착적인 문화적 면모를 형성하였다.<sup>41)</sup> 이는 고구려 문화의 개방성과 포용성을 보여주며, 동아시아 고대 문명의 교류와 융합을 촉진했다.

### 3) 고구려의 사회 변화와 정치 구축에 관한 연구

고구려의 사회 변천과 정치 구축은 그 역사 과정에서의 중요한 과제이며, 민족 정체성, 정치 조직 및 주변 정권과의 관계 등 다차원적인 내용을 포함한다. 클러스터 #2 부여, #7 발해, #8 발해, #10 호태왕비, #13 묘지명을 중심으로 “발해, 예맥, 족원(族源), 오부(五部), 귀속, 당대(唐代) 이민“ 등의 키워드가 포함되며, 이러한 클러스터와 키워드는 고구려의 민족 기원, 정치 제도 발전 및 후속 역사 과정에서의 핵심 요소를 드러낸다.

고구려의 초기 사회는 부여와 밀접한 관계를 맺었으며, 문화적 관습에서도 유사한 점이 많으며<sup>42)</sup> 일부 학자들은 고구려 민족의 근원이 부여에서 비롯되었다고 여긴다.<sup>43)</sup> 고구려 초기에는 사회조직이 “오부”를 핵심으로 했으며, 이러한 부족 분포 방식은 초기 정치권력이 분산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관련 연구는 오부의 기원, 형성 시기와 분포 범위, 사회 형태와 그 후의 고구려 발전에 미친 영향 등이 포함된다.<sup>44)</sup> 중국 학계는 고구려와 발해의 관계를 민족 기원, 역사 및 문화적으로 해석하는 데 전념해 왔다. “발해와 고구려는 각각 숙신족(肅慎族)과 예맥족(濊貊族)에게 속하며, 혈연적으로 서로 다른 민족으로, 상호 간에 필연적인 연계나 계승 관계가 없으며, 발해는 고구려의 계승 국이 아니다<sup>45)</sup>”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두 나라가 문화적으로 어느 정도의 유사점이 있다는 것은 인정되지만, 민족 형성과 문화적 특징은 각각 대륙의 기원과 고유한 서열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sup>46)</sup> 발해 국가는 말갈인을 중심으로 형성되었고, 상당수의 고구려인이 결합했다. 다차원적인 민족 문제는 발해의 역사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다.<sup>47)</sup> 그러나 발해가 단순히 고구려의 계승국으로 여겨져서는 안 된다는 것도 방증하고 있다.

호태왕비는 고구려의 중요한 금석문 자료로, 고구려의 확장기 정치 구축과 군사 활동에 관한 귀중한 기록을 제공하고 있다. 고구려 역사 연구에서 호태왕비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자료로, 사료 보완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영향력이 깊으므로 호태왕비에 관한 연구는 중국에서 “학안(學案)”으로 여겨지고 있다.<sup>48)</sup> 이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학자는

41) 徐晶, 2012, 172~177쪽 ; 姜大鵬, 2015, 346~352쪽 ; 張耀元, 2021.

42) 張碧波, 1998, 56~66쪽.

43) 王健群, 1987, 137~139쪽 ; 李德山, 1992, 224~229쪽 ; 进己, 2002, 162~175쪽.

44) 张甫白, 1996, 60~65쪽 ; 刘子敏, 2001, 177~188쪽 ; 王绵厚, 2008, 32~35쪽.

45) 武玉环, 2004, 79~83쪽.

46) 魏存成, 1989, 77~83쪽.

47) 範恩實, 2015, 108~121쪽.

경철화이며, 그는 호태왕비에 관한 전방위적인 연구를 진행했을 뿐만 아니라 각 시기의 탁본을 적극적으로 찾고 국내외 연구 현황을 정리했다.<sup>49)</sup> 호태왕비는 고구려 왕권의 공고화와 확장을 기록했으며, 뿐만 아니라 당시 고구려의 대외 정복과 내정 통치 이념을 반영하고 있다.<sup>50)</sup> 비문에 새겨진 “천명(天命)” 관념은 고구려 지배층의 정치적 정당성을 강화했으며,<sup>51)</sup> 동아시아 지역 질서에서 고구려의 역할과 지위를 보여준다. 호태왕비는 강한 예술성을 겸비하고 있으며, 서예의 관점에서 그 예술적 조예를 설명하는 것도 학자들의 연구 중심이다.<sup>52)</sup>

정치 구축과 사회적 정체성에 이르기까지 고구려는 내부 민족을 통합하고 왕권 제도를 강화하는 데 뛰어난 조직력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국가가 멸망한 후에도 문화 전승과 민족 지속성에서도 강한 생명력을 보여주었다. 묘지명 등 금석 문헌은 고구려의 사회 구조, 이민 변천 및 정치 구축에 대한 실증적 근거를 제공한다. 고구려가 멸망한 후, 일부 고구려 유민들은 중원과 한반도 남부로 이주했으며, 대규모의 당대 이민 현상이 일어났다. 이 이민자들은 고구려의 문화와 생활 방식을 가지고 갔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지역의 문화 융합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서안, 낙양은 당나라의 수도가 있었던 곳으로, 고구려 멸망 후 이민자들의 주요 이주지 중 하나였다. 1920년대 이후 20여 개의 고구려 이민 묘지가 발견됨에 따라 학자들은 묘지명에 기록된 가문 계보, 이주 경로 및 정체성 인식에 대한 상세한 해석을 통해 고구려의 후손들이 새로운 정치적 구도 속에서 어떻게 적응하고 새로운 사회적 정체성을 구축했는지 밝혀내고 있다.<sup>53)</sup>

#### 4) 고구려 신화, 종교 및 예술 연구

고구려의 종교 문화, 신화 체계 및 그 예술적 표현은 고구려의 정신세계와 문화적 특성을 탐구하는 핵심 내용이다. 핵심 클러스터 #6 불교, #12 난점과 관련된 키워드에는 “불교, 신화, 예술, 문화 전파”가 포함된다. 이러한 요소들은 고구려의 독특한 정신적 문화뿐만 아니라, 지역 문화 교류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보여준다.

고구려의 지배 계층은 불교를 추앙함으로써 통치자의 정당성을 공고히 하고 국가 권력을 유지했다.<sup>54)</sup> 고구려의 불교는 심지어 외교적 성질을 지니고 있었으며, “고구려는 전법승을 예우하고, 구법승을 중원에 파견하여 호의를 표했으며, 일본에 전법승을 보내 불상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어 외교적 우위를 공고히 하였고, 또한 고구려의 대외 전쟁에서는 승병과 승려

48) 孫煒冉, 2024, 24~30쪽.

49) 耿鐵華, 2024, 154~179쪽.

50) 耿鐵華, 2015, 45~50쪽.

51) 姜維公, 2016, 38~45쪽 ; 李大龍, 2015, 1~8쪽.

52) 李樂瑩, 1996, 98~101쪽 ; 叢文俊, 2004, 51~53쪽 ; 李娜, 2021.

53) 樓正豪, 2017, 41~50쪽 ; 王連龍·叢思飛, 2017, 121~131쪽 ; 王連龍·黃志明, 2022, 116~122쪽.

54) 李樂瑩, 2008, 81쪽.

가 정보수집과 첩보활동에 참여한 사례도 있었다.<sup>55)</sup> 불교는 사회 이데올로기의 중요한 구성 요소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문화 예술의 번영도 촉진했다. 고구려의 신화 체계도 풍부하고 다채로웠으며, 고구려의 문화적 정체성과 정신세계를 이해하는 중요한 창구이다. 고구려의 건국 신화, 예를 들어 ‘주몽 신화’는 천명 관념과 신권이 왕권을 부여하는 정당성을 강조하며, 이는 고구려의 정치적 구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중국 학자들은 신화를 통해 고구려의 민족 기원을 탐구하고<sup>56)</sup> 초기 역사 속의 진실과 오류를 탐색하고 데 힘쓰고 있다. 예를 들어, 이대룡(李大龍)이 ‘황룡 승천’을 통해 추모(鄒牟)가 주몽임을 고증했지만, 실제로 그는 서한(西漢)에 의해 유인되어 죽임을 당했다.<sup>57)</sup>

신화 속에서 자연에 대한 숭배와 생식에 대한 숭배를 결합한 요소들은 초기 고구려인들의 천지 만물에 대한 경외심을 반영하며, 세상에 대한 고구려인의 인식을 반영한다.<sup>58)</sup> 이러한 신화들은 고구려의 벽화와 비문 예술에 자주 등장하며, 역사 문화와 예술 표현의 핵심 주제 중 하나가 되었다. 고구려의 고분벽화는 고구려인들의 사후 세계에 대해 상상을 생생하게 묘사하여 뚜렷한 종교 사상과 예술 양식을 표현하고 있다.<sup>59)</sup> 벽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냥 장면, 음악과 춤을 즐기는 장면, 예불을 하는 장면 등은 고구려인들의 현실 생활 기록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종교 신앙과 신화 이야기의 예술적 재현도 표현하고 있다. 고구려 발전 후기에 이르러 사상 분야는 유교, 불교, 도교의 ‘삼교합일’ 하는 양상을 보였다.<sup>60)</sup>

### 3. 어려운 점과 한계

중국의 고구려 연구는 사실상 발전의 한계에 접어들었으며 주요 사료는 여러 차례의 발굴과 활용을 통해 기초 지식 체계가 기본적으로 형성되었다. 비록 학계에서는 항상 사료에 대한 “정밀한 탐구”를 옹호해 왔지만, 실제로 이를 실행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고구려 연구의 수준과 질을 보면 많은 학술 성과가 높은 수준의 통찰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며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혁신적인 이바지를 했지만, 일부 분야의 연구 수준은 사실 선행 학자들의 연구에 기초하여 실질적으로는 향상되지 않았고, 반복적인 연구가 비교적 일반적이어서 학술 연구의 혁신 능력과 새로운 학술 성장 가능성을 개척하는 데 한계를 보였다”라는 지적이 있다.<sup>61)</sup> 이러한 상황을 바꾸기 위해 일부 학자들은 ‘스스로 잘못을 고치고 새롭게 행함’을 통해 전통적인 연구 패러다임을 돌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55) 李海濤, 2011, 51~55쪽.

56) 梁志龍, 1997, 185~192쪽 ; 楊軍, 2009, 54~58쪽 ; 王卓, 2015, 45~49쪽.

57) 李大龍, 2021, 48~56쪽.

58) 王純信, 1996, 199~205쪽 ; 樸雅林, 2015, 170~184쪽 ; 楊璐·全瑩, 2020, 83~96쪽.

59) 鄭京日, 2007 ; 楊璐·金漢珍, 2022, 242~255쪽.

60) 耿鐵華, 2007, 62~74쪽.

61) 高福順·明陽, 2024, 49쪽.

수십 년 동안 여러 세대의 고구려 연구자들이 끊임없이 노력해 왔지만, 현재 학자들의 연령 구조는 합리적이지 않다. 주침(朱尖)은 중국 학계에서 고구려 연구에 종사하는 핵심 연구자들이 “50년대생”과 “60년대생”이며, 소수는 ‘70년대생’과 “80년대생”이며, ‘90년대생’이 매우 적어 전체적으로 고령화 추세를 보인다고 통계한 바가 있다.<sup>62)</sup> 고령 학자들이 점차 학술 일선에서 물러나면서 후계자가 부족할 경우 중요한 학술 과제들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게 되고, 소중한 연구 경험과 자원도 효과적으로 전수되지 못할 수도 있다. 학문적 계승이 부족하면 연구 관점이 전통적인 방향에 머무르게 되며, 이는 해당 분야의 장기적인 발전과 활력에 쉽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국제적인 논쟁과 정치적 요인은 고구려 연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며, 학문적 논의에 많은 저해를 가져왔다. 고구려의 역사는 중국 동북 지역과 한반도 북부에 걸쳐 있으며, 그 민족 귀속과 역사 문화에 많은 논쟁이 있다. 이러한 논쟁은 학술 입장뿐만 아니라 현대 국가의 이익과도 밀접하게 얽혀 있다. 한중 양국은 고구려 문화유산의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 등재 문제에서 의견 차이를 보였고, 이는 역사적 기억과 현실 정치 간의 갈등을 부각했으며 고구려 연구는 민감한 의제로 떠올랐다. 정치적 요인의 영향으로 연구자의 견해 차이가 연구 시각의 단편화와 역사 사실 해석의 선택성을 초래하기 쉬워 절대적인 객관성과 공정성을 달성하기 어렵다. 국제 학계에서 고구려에 관한 관심도 이러한 논란에 영향을 받아 학술 협력의 폭과 깊이가 부족한 상황이다. 외부 연구 성과에 대한 인식 부족도 존재하는데, 예를 들어 중국의 한국 고구려 연구사의 초기 정리와 반성에 이러한 경향이 존재한다.<sup>63)</sup>

정치적 요인의 침투는 연구 주제 선정과 자원 분배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 일부 학자들은 정치적 감정이나 외교적 압력으로 인해 민감한 주제를 회피하거나 특정 입장에 맞추는 경향이 있어 학술 탐구의 자유와 객관성의 제한을 초래한다. 이러한 제한은 젊은 학자들이 고구려 연구를 주저하게 만들고, 사회의 인정이 더 높고 연구 성과를 더 쉽게 도출할 수 있는 연구 방향을 선택하는 경향을 일으켰다. 이러한 상황이 장기적으로 이루어지면 고구려 연구가 피폐해지기 십상이다.

62) 朱尖, 2020, 123~144쪽.

63) 趙宇然, 2016, 46~58쪽.

## V. 맺음말: 중국 학계의 고구려 연구의 향후 발전 방향

지난 수십 년을 돌아보면, 고구려 연구는 민족 기원 문제에 대한 논의에서부터 고고학 분야에 대한 노력, 그리고 최근 동북아시아의 지역 역사 및 유산 보호를 둘러싼 연구 초점에 이르기까지, 고구려 연구에 대한 학계의 역동적인 변화를 제대로 들여다볼 수 있다. 미래를 전망하면, 중국 학계의 고구려 연구는 학제적인 시각, 국제 학술 대화, 기술 및 정책 지원의 틀 안에서 더 넓은 발전 공간을 맞이할 것으로 기대된다.

### 1. 학술 방면

고구려 연구의 경계는 역사학 분야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다. 인류학과 민족학적 시각을 융합하여 신화 전설과 제사 의식의 분석을 통해 고구려인의 민족 정체성과 권력구조를 탐구할 수 있다. 고구려와 현존하는 동북아시아 민족들의 문화 전통을 민족지(民族誌)와 결부하는 방법으로 비교 연구하여 고구려 문화의 지속성과 변화의 규칙을 밝힐 수 있다. 언어학을 통해 고대 지명, 비석 문자, 중원 역사 기록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고구려인의 민족 정체성과 문화 전파 경로를 밝혀낼 수 있다. 언어학은 고대 지명, 비각 문자 및 중원 역사 기록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그 민족 정체성과 문화 전파 경로를 진일보로 드러낸다. 고구려 고분벽화와 유물 문양을 기호학(記號學)적으로 해석하여 그 색채와 이미지의 상징적 의미 및 종교적 함의를 밝힌다. 고구려 예술과 중원, 초원과 한반도 예술을 비교 연구하여 고구려 예술 전통의 다양성을 보여준다.

고구려 연구는 점차 본토 시각에서 국제적 시각으로 나아가며, 글로벌 역사 틀에서의 중요한 과제와 지역 연구의 패러다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구려의 역사적 위상과 지역 문화의 중개 역할을 연구하는 것은 각국의 동북아 역사 구도에 대한 이해를 심화할 뿐만 아니라 귀중한 비서구적 시각을 제공할 수 있다. 기존의 학술 연구를 보면, '동북아'나 '동아시아'와 같은 키워드가 자주 등장하여 학계가 고구려를 지역사와 세계사의 서사 틀에 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고구려는 주변 정권과 복잡한 정치 문화적 유대를 통해 동북아 지역 질서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접점이 되었다. 고구려 연구의 미래는 학문적 깊이뿐만 아니라 문화 전략, 국제 교류와 다학제 융합에서 새로운 활력을 보여줄 것이다. 학술 가치에서 문화 전략에 이르기까지 고구려 연구의 의의는 학술의 경계를 넘어선 지 오래다.

### 2. 기술과 정책 방면

고고학과 과학기술의 깊이 있는 융합은 고구려의 물질문화와 정신세계를 연구하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다. 원격 감사 탐지 기술은 고구려 고고학에 강력한 지원을 제공하며, 항공 원

격 탐지와 위성 영상 형성 기술을 통해 연구자들은 유적지의 분포 범위와 지형 특성을 빠르게 식별할 수 있다. 고구려의 적석묘는 대부분 산지와 구릉 지역에 분포되어 있어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모든 유적지를 커버하기 어려웠지만, 원격 탐지 기술은 지표의 스펙트럼 차이를 분석하여 식생에 덮여있는 무덤을 효율적으로 위치시킬 수 있었다. 지리 정보 시스템(GIS)은 지형 데이터, 유적 분포, 고고학 정보를 통합하여 시각화 지도를 생성하고, 연구자들이 고구려 마을과 무덤의 공간 배치 및 자연환경과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드론은 고화질 카메라와 LiDAR(빛 탐지 거리 및 측정) 기술을 탑재하여 고해상도 지표 이미지와 3D 지형 모델을 얻을 수 있다. 이는 무덤 구조를 세분화하는 연구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무덤 주변의 방어 공사, 도로 및 마을 배치를 드러낼 수 있으며, 고구려인의 무덤 위치 선정에 대한 사회적 문화적 논리를 깊이 있게 분석할 수 있다. 분자생물학 기술은 고구려인의 신체적 특징과 생활 방식을 탐구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공한다. 무덤에서 출토된 사람 뼈와 동물 유해의 DNA 분석을 통해 고구려인의 유전자 구성을 재구성하고, 그들의 민족 기원과 이동 경로를 추적할 수 있다. 식물 고고학은 유적지의 탄화된 종자와 식물 유물을 감정하여 고구려 문명을 이해하는 데 더욱 입체적인 학문적 틀을 제공할 것이다.

고구려 연구의 발전은 국가 정책의 추진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은 “일대일로(一帶一路)” 구상 등의 정책을 통해 역사 문화 자원의 보호와 활용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고구려는 동북아 지역 문화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서 일정한 수준의 중시를 받고 있다. 문화유산 보호와 관련하여 도면에 나타난 “보호”와 같은 키워드는 고구려 유적의 보존과 개발이 학문과 정책의 중요한 의제로 다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중국 국가 차원에서는 고구려 유적지의 보호 강화를 위한 조치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지안시의 유적 공원 계획에 스마트 관리와 디지털 복원 기술을 전면 도입하여 고구려 문화유산의 전파력과 영향력이 더욱 확대될 것이고 고구려 문화의 연구 성과는 관광개발과 공공교육에도 널리 적용될 전망이다. 호태왕비와 같은 문화적 기호를 결합하여 역사, 문화, 현대 기술을 통합한 박물관과 문화 노선을 구축할 수 있다.

외교 분야에서 고구려 연구는 한중 관계 발전을 촉진하는 잠재적인 역할을 가지고 있다. 고구려의 역사적 귀속 문제는 한중 학술 및 여론의 장에서 논쟁을 불러일으켰지만, 지역 문화의 정체성과 협력이 강화됨에 따라 학술 대화는 양국의 이해와 소통을 촉진하는 다리 역할을 할 것이다. 한중 연합 고고학과 학술 세미나를 통해 고구려의 문화유산 보호와 연구를 둘러싼 협력이 심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협력은 연구 자원의 공유를 실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중 양국 국민이 갈등을 버리고 문화적 합의를 이루는 데에도 이바지할 것이다.

투고일: 2025.04.07, 심사개시일: 2025.05.13, 게재확정일: 2025.06.02.

## 【참고문헌】

### [중문]

- 葛继勇, 2016, 「新出高乙德墓志与高句丽末期的内政外交」, 『郑州大学学报(哲学社会科学版)』49卷1.
- 姜大鹏, 2015, 「高句丽诗歌中的汉文化影响」, 『辽宁省博物馆馆刊』.
- 姜维公, 2016, 「好太王碑及其“始祖传说”模式的意义——以高句丽早期王系为中心」, 『东北史地』1.
- 耿铁华, 1986, 「高句丽壁画中的社会经济」, 『北方文物』3.
- 耿铁华, 2001, 「高句丽釉陶器的类型与分期」, 『考古与文物』3.
- 耿铁华, 2007, 「高句丽儒释道“三教合一”的形成与影响」, 『古代文明』4.
- 耿铁华, 2015, 「好太王碑与东北亚古代国家关系」, 『东北史地』第4期.
- 耿铁华, 2019, 「高句丽历史与文化研究百年综述」, 『社会科学战线』8.
- 耿铁华, 2024, 「高句丽碑刻的发现与研究——纪念好太王碑建立1610周年」, 『社会科学战线』12.
- 高福顺·明阳, 2024a, 「近二十年来中国学者高句丽历史研究述评(上)」, 『地域文化研究』5.
- 高福顺·明阳, 2024b, 「近二十年来中国学者高句丽历史研究述评(下)」, 『地域文化研究』6.
- 高新来·郭艳敏, 2006, 「高句丽丸都山瞭望台石构件的科技保护探研」, 『中国文物科学研究』1.
- 邱均平, 2002, 「文獻計量學」, 科學出版社.
- 金塔俊·振家·雲華, 1959, 「高句丽古坟壁画研究」, 『美术研究』4.
- 金芸竹, 2020, 「集安高句丽历史文化资源的产业化开发研究」, 延边大学硕士学位论文.
- 都宥浩·李啓烈, 1952, 「在北韓安岳發現的一些高句麗古墳」, 『文物参考资料』1.
- 梁志龙, 1997, 「朱蒙考源」, 『社会科学战线』5.
- 楼正豪, 2017, 「新见高句丽移民李隐之墓志铭考释」, 『延边大学学报(社会科学版)』50卷2.
- 刘祁, 2018, 「七世纪上半叶唐朝、高句丽、日本的道教交流」, 延边大学硕士学位论文.
- 刘伟, 2014, 「论高句丽道教的传播及其“道”的内涵」, 『通化师范学院学报』35卷1.
- 刘毅·周利, 2024, 「《地域文化研究》(《东北史地》)2004—2024年刊载高句丽史研究论文述要」, 『地域文化研究』6.
- 刘子敏, 2001, 「高句丽疆域沿革考辨」, 『社会科学战线』4.
- 李娜, 2021, 「好太王碑书法研究」, 北华大学硕士学位论文.
- 李大龙, 2009, 「由解明之死看高句丽五部的形成与变迁——以桂娄部为中心」, 『东北史地』3.
- 李大龙, 2015, 「黄龙与高句丽早期历史——以《好太王碑》所载邹牟、儒留王事迹为中心」, 『青海民族大学学报(社会科学版)』41卷1.
- 李大龙, 2021, 「试析高句丽建构建国神话的时代背景与目的」, 『史学集刊』5.
- 李德山, 1992, 「高句丽族称及其族属考辨」, 『社会科学战线』1.
- 李爽, 2018, 「长寿王时期高句丽与北魏的关系」, 『社会科学战线』6.
- 李乐营, 2008, 「高句丽宗教信仰研究」, 东北师范大学博士学位论文.
- 李乐营·孙炜冉, 2013, 「佛教对高句丽建筑的影响」, 『通化师范学院学报』11.

- 李乐莹, 1996, 「从冉牟墓志和好太王碑看高句丽书法」, 『通化师院学报』1.
- 李殿福, 1982, 「高句丽丸都山城」, 『文物』6.
- 李海涛, 2011, 「略论高句丽的佛教及其影响」, 『世界宗教文化』6.
- 林茂雨·李龙彬, 2002, 「高句丽民族的婚丧习俗及宗教信仰」, 『北方文物』3.
- 林至德·阎毅之·赵书勤, 1983, 「集安高句丽墓葬发掘简报」, 『考古』4.
- 马大正, 2004, 「中国学者的高句丽归属研究评析」, 『东北史地』1.
- 武玉环, 2004, 「渤海与高句丽族属及归属问题探析」, 『史学集刊』2.
- 朴均吉, 2000, 「玄奘与韩半岛佛教」, 华东师范大学博士学位论文.
- 朴玉顺, 2024, 「高句丽古城遗址保护规划编制的」, 『高句丽与东北民族研究』.
- 朴真奭, 1989, 「关于高句丽存在山上王与否的问题——与杨通方同志商榷」, 『世界历史』2.
- 朴灿奎, 2003, 「高句丽之“下户”性质考」, 『东疆学刊』3.
- 拜根兴, 2013, 「入唐高丽移民墓志及其史料价值」, 『陕西师范大学学报(哲学社会科学版)』2.
- 朴雅林, 2015, 「高句丽墓葬建筑与装饰所体现的祖先崇拜」, 『古代墓葬美术研究』.
- 潘畅和·李海涛, 2009, 「佛教在高句丽、百济和新罗的传播足迹考」, 『延边大学学报(社会科学版)』42卷1.
- 范恩实, 2015, 「论渤海史上的族群问题」, 『社会科学战线』5.
- 范恩实, 2016, 「2010年以来国内学界高句丽史研究综述」, 『中国边疆学』2.
- 范恩实, 2021, 「高句丽史上的外来族群问题研究」, 『史学集刊』5.
- 常乐, 2014, 「高句丽与北魏交涉关系研究」, 延边大学博士学位论文.
- 徐德源, 2001, 「高句丽历史与疆域归属问题补议」, 『社会科学战线』5.
- 徐晶, 2012, 「从妇女装饰“花子”看高句丽文化的中原化」, 『暨南史学』.
- 薛海波, 2008, 「高句丽后期“城人”与“城体制”略探」, 『通化师范学院学报』29卷9.
- 薛海波, 2010, 「试论北燕与高句丽的政治关系」, 『东北史地』6.
- 孙玉良, 1985, 「公元五世纪前后高句丽的发展」, 『北方文物』3.
- 孙炜冉, 2017, 「高句丽后期与百济关系的和解」, 『韩国研究论丛』1.
- 孙炜冉, 2020, 「高句丽对日本佛道文化的影响」, 『法音』8.
- 孙炜冉, 2024, 「“好太王碑学案”的史学地位与研究意义」, 『高句丽与东北民族研究』.
- 孙进己, 2001, 「高句丽历史研究综述」, 『社会科学战线』2.
- 孙进己, 2002, 「高句丽的起源及前高句丽文化的研究」, 『社会科学战线』2.
- 孙泓, 2004, 「高句丽文化的主体」, 『东北史地』12.
- 宋娟, 2015, 「高句丽都城与环境的互动关系探讨」, 『北方文物』4.
- 杨军, 2002, 「从“别种”看高句丽族源」, 『东疆学刊』1.
- 杨军, 2009, 「高句丽朱蒙神话研究」, 『东北史地』6.
- 杨璐, 2018, 「从宫廷乐舞看隋唐与高句丽、百济的文化交融」, 延边大学硕士学位论文.
- 杨璐·全莹, 2019, 「古代高句丽墓葬壁画中的“生殖崇拜”」, 『艺术生活—福州大学学报(艺术版)』5.
- 杨璐·全莹, 2020, 「高句丽“鸟”崇拜的神话起源与社会意识」, 『文学人类学研究』1.

- 杨璐, 2021, 「北韓德兴里壁画墓的生死观研究」, 『通化师范学院学报』42卷5.
- 杨璐·金羨珍, 2022, 「古代朝鲜神山文化的产生与发展——以神话与出土器物为中心」, 『神话研究集刊』2.
- 杨泓, 1958, 「高句丽壁画石墓」, 『文物参考资料』4.
- 严可, 2021, 「北魏遣使高句丽关联问题探赜——兼论北魏与高句丽首次往来时间」, 『暨南史学』2.
- 王健群, 1987, 「高句丽族属探源」, 『学习与探索』6.
- 王立達, 1955, 「關於高麗高句麗及其他朝鮮史問題的商榷」, 『历史教学』5.
- 王丽萍, 2001, 「浅析高句丽舞乐在历史上的地位和作用」, 『社会科学战线』6.
- 王连龙·丛思飞, 2017, 「战争与命运:总章元年后高句丽人生存状态考察——基于高句丽移民南单德墓志的解读」, 『社会科学战线』5.
- 王连龙·黄志明, 2022, 「唐代高句丽移民《李仁晦墓志》考论」, 『文物季刊』2.
- 王绵厚, 2006, 「辽东“貊系”青铜文化的重要遗迹及其向高句丽早期文化的传承演变——关于高句丽早期历史的若干问题之四」, 『东北史地』6.
- 王绵厚, 2008, 「西汉时期的玄菟郡“帑沟娄”城与高句丽早期“南北二道”的形成——关于高句丽早期历史文化的若干问题之六」, 『东北史地』5.
- 王纯信, 1996, 「高句丽民族艺术遗存中的生殖崇拜」, 『社会科学战线』4.
- 王俊铮, 2022, 「北朝石窟视阈下高句丽墓葬壁画中的佛教元素——以长川11号墓为中心」, 『敦煌研究』3.
- 王天姿·吴博, 2016, 「2004—2013年国内高句丽墓葬发掘报告及其相关著作研究综述」, 『高句丽与东北民族研究』0.
- 王天姿, 2018, 「高句丽辽东安市城、建安城研究」, 延边大学博士学位论文.
- 王聪, 2023, 「从高句丽墓室壁画看佛教的传播与影响」, 『文史杂志』5.
- 王卓·刘成新, 2015, 「高句丽王族的族源神话建构及其历史影响」, 『东北史地』2.
- 汪晖, 2020, 「高句丽、蒙元史与跨体系社会的历史叙事」, 『东南学术』1.
- 熊义民, 2003, 「公元四至七世纪东北亚政治关系史研究」, 暨南大学博士学位论文.
- 魏存成, 1989, 「高句丽、渤海文化之发展及其关系」, 『吉林大学社会科学学报』4.
- 魏存成, 2016, 「我国东北地区的高句丽封土石室墓」, 『东南文化』4.
- 张碧波, 2000, 「关于历史上民族归属与疆域问题的再思考——兼评“一史两用”史观」, 『中国边疆史地研究』2.
- 张碧波, 1998, 「高句丽文化渊源考」, 『北方文物』1.
- 张甫白, 1996, 「高句丽五部与统一的民族和国家」, 『龙江社会科学』1.
- 张驭寰, 1958, 「辑安附近高句丽时代的建筑」, 『文物参考资料』4.
- 张耀元, 2021, 「五至七世纪朝鲜半岛书法流变与特点」, 延边大学硕士学位论文.
- 褚金刚·吴炎亮·孙子航等, 2022, 「辽宁桓仁县三座高句丽山城及北沟突隘遗址调查报告」, 『北方文物』4.
- 田文童, 2023, 「高句丽早期积石墓研究」, 吉林大学硕士学位论文.
- 全畴农, 1959, 「关于高句丽古坟壁画上乐器的研究」, 『音乐研究』3.
- 郑京日, 2007, 「高句丽“弓矢文化”初论」, 延边大学硕士学位论文.

- 郑春颖·刘玉寒, 2015, 「高句丽壁画服饰的构成、族属与变迁」, 『史志学刊』5.
- 赵宇然, 2016, 「国内对韩国高句丽研究史的整理与反思」, 『高句丽与东北民族研究』.
- 赵俊杰·马健, 2012, 「集安禹山两座高句丽时期积石墓的时代及相关问题」, 『考古』5.
- 赵振华·闵庚三, 2009, 「唐高质、高慈父子墓志研究」, 『东北史地』2.
- 朱尖, 2017, 「高句丽都城变迁研究」, 东北师范大学博士学位论文.
- 朱尖, 2018, 「高句丽世界遗产价值评价及研学旅行利用研究」, 『资源开发与市场』7.
- 朱尖, 2020, 「改革开放40年来高句丽研究现状分析——以研究成果的数据统计和内容分析为中心」, 『中国边疆学』1.
- 陈悦·陈超美·刘则渊, 2015, 「CiteSpace知识图谱的方法论功能」, 『科学学研究』2.
- 戚欣·王新英, 2019, 「集安城市古建筑遗址保护对策研究」, 『遗产与保护研究』2.
- 丛文俊, 2004, 「好太王碑书法及其相关问题略论」, 『东北史地』1.
- 沈英淑, 2001, 「高句丽迁都平壤问题研究」, 延边大学硕士学位论文.
- 冯楠·王蕙贞·宋迪生, 2010, 「环境因素对露天石质文物的危害——以集安市高句丽王城、王陵和贵族墓葬为例」, 『边疆考古研究』.
- 冯立君, 2018, 「高句丽泉氏与唐朝的政治关系」, 『社会科学战线』8.
- 何满潮·刘成禹·王树仁等, 2005, 「国家重点文物保护单位——高句丽将军坟变形破坏机理研究」, 『岩石力学与工程学报』13.
- 黄剑锋, 2015, 「高句丽古城景观数字复原中虚拟现实的应用」, 吉林艺术学院硕士学位论文.

**【Abstract】**

**Chinese Academic Circle's Study on Goguryeo' Progress, Reviews and Prospects  
- On the application of Bibliometrics analysis -**

Yang, Lu & Quan, Ying

Given the unique historical and cultural significance of Goguryeo, its research has been developing and accumulating over an extended period in Chinese academia. This study employs bibliometric methods, using the CNKI database as a sample, to systematically review and analyze Chinese academic works on Goguryeo since 1952. By statistically examining data on publication volume, publication years, thematic distribution, research institutions, and scholars, this paper identifies the main research areas, academic hotspots, and emerging trends in Goguryeo studies. The findings show that research on Goguryeo in China primarily focuses on four key areas: Goguryeo sites and cultural heritage, regional exchanges and historical-cultural connections, social evolution and political construction, and mythology, religion, and art. However, several limitations persist, including a lack of substantial innovation, an aging scholar demographic, and the negative impact of cross-national disputes and political factors on the research. Based on the current state of research and data trends, it can be projected that future studies on Goguryeo in China will increasingly integrate multidisciplinary perspectives, leverage technological advancements, be guided by policy and cultural strategies, and foster the convergence of regional history with global historical frameworks.

**Keywords** : Goguryeo, Chinese Academic circle, Bibliometrics, Current  
Research Status, Development Trend